



茶山

부록

1장. 여타 기념행사

2장. 언론보도



1장 여타 기념행사

1. 월별 기념행사 개괄

월	기념행사
2	남산도서관 테마전시 (남산도서관, 2월 27일~3월 31일)
3	다산목민대상 (다산연구소, 3월 13일)
4	다산 176주기 묘제 및 헌다례 봉행 (다산연구소 외, 4월 7일)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특별전 '다산, 한강의 삶과 꿈' (실학박물관, 4월 27일~9월 9일)
6	관훈클럽 다산학술세미나 (관훈클럽 외, 6월 7일)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6월 9일)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 (예술의전당 외, 6월 17일~7월 22일)
7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제2회 전국대학(원)생 다산학술논문대전 (다산학술문화재단, 7월~9월)
	탄신기념 대학생 실학캠프 (다산연구소, 7월 14일~17일)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 (전라남도 강진군 외, 7월 28일~8월 5일)
	남양주역사박물관 기증유물특별전 (남양주역사박물관, 7월 30일~12월 31일)
8	다산 탄생 250년 '다산의 향연' (실학박물관, 8월 4일~5일)
	국악방송,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집 (국악방송, 8월 4일~5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학술 심포지움 (실학박물관 외, 8월 13일)
	제3회 다산다인상 시상식 및 선비다례 시연회 (다산연구소, 8월 24일)
	길 위의 인문학, '다산에게 길을 묻다' (국립중앙도서관 외, 8월 24일~25일)
9	정조 · 다산 리더십 토크콘서트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9월 1일)
	제26회 남양주 다산문화제 (남양주시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9월 7일~9일)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시회 (서울대 법학대학원, 2012년 9월 7일~ 12월 20일)
	과주복소리 2012, '다산의 날' (다산연구소, 9월 20일)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9월 22일)
10	길 위의 인문학, 다산탄생 250주년 기념 '길따라 역사따라 다산을 따라' (남양주시 도농도서관, 10월 13일)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서예전 (한길책박물관, 10월 13일~11월 18일)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테마전 (국립중앙박물관, 10월 30일~12월 16일)
11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교회사연구소, 11월 23일)

2. 남산도서관 테마전시

○기간 : 2월 27일 ~ 3월 31일

○장소 : 남산도서관 도서관

○내용 : 다산의 업적과 명언들의 소개와 다산 관련 영화·동영상·드라마 등의 상영, 그리고 독서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함.

3. 제4회 다산목민대상

○일시 : 3월 13일, 11:00~13: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주관 : 다산연구소

○내용 :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선생의 목민정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으로,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서천군이 선정됨.

4. 다산 176주기 묘제 및 헌다례 봉행

○일시 : 4월 7일, 10:30~14:00

○장소 : 남양주 다산 유적지 및 실학박물관

○주최 :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

○후원 : 중앙일보, 삼성전자, jcontentree M&B, 국가제사예찬연구원, 원유전
통문화연구원

5.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특별전 '다산, 한강의 삶과 꿈'

○기간 : 4월 27일 ~ 9월 9일

○장소 : 실학박물관 특별전시실 및 중앙홀

○주최 : 실학박물관

6. 관훈클럽 다산 학술세미나

○일시 : 6월 7일, 오전 10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주제 : '다산, 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주관 : 관훈클럽, 다산연구소

7.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학술대회

○일시 : 6월 9일, 09:30~18:00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주제 : '茶山 연구의 새로운 모색'

○주최 : 한국한문학회,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주관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8.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

- 기간 : 6월 16일 ~ 7월 22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 주제 : ‘천명(天命), 다산의 하늘’
- 주최 : 예술의전당, 전라남도 강진군, 단국대학교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9.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제2회 전국대학(원)생 다산학술논문대전

- 수상 : 9월 7일 ~ 9일, 다산문화제 기간 중
- 대상 : 전국 대학(원)생 (재학·휴학·수료생)
- 주최 : 남양주시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 주관 : 다산학술문화재단

10. 탄신기념 대학생 실학캠프

- 기간 : 7월 14일 ~ 17일
- 장소(코스)
 - 경기도 남양주(실학박물관, 다산 정약용 유적지/출발지 및 도착지)
 - 경기도 안산(성호기념관)
 - 경남 안의 (연암 박지원 유적지)
 - 전남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지) : 다산초당, 해남 대흥사, 녹우당, 땅끝
 - 전북 부안 (반계 유형원 유적지) 등
- 주관 : 다산연구소
- 후원 : 실학박물관
- 내용 : 관련 유적 답사 및 해설, 실학연구자들과 토론 및 발표, 다산 관련 강연,

문화공연, 친목·단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됨.

11.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

- 기간 : 7월 28일 ~ 8월 5일
- 장소 : 강진군 다산기념관
- 주제 : ‘천명(天命), 다산의 하늘’
- 주최 : 예술의전당, 전라남도 강진군, 단국대학교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12. 남양주역사박물관 기증유물특별전

- 기간 : 7월 30일 ~ 12월 31일
- 개막식 : 8월 17일, 오후 3시
- 장소 : 남양주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
- 주제 : ‘다산’을 실천하다

13. 다산 탄생 250년 ‘다산의 향연’

- 기간 : 8월 4일 ~ 5일
- 장소 : 실학박물관, 다산유적지, 실학생태동산 일대
- 주최 : 경기도, 남양주시
- 주관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 후원 : 다산연구소
- 행사내용
 - 8월 4일(토): 다산 탄신 고유제, 2세기만의 다산 회혼례, 다산음악회 등
 - 8월 5일(일): 마재마을 철마산 산신제, 다산뮤지컬 등

14. 국악방송,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집

- 일시 : 8월 4일 ~ 5일, 밤 10시
- 프로그램명 : 국악방송의 문학 프로그램 ‘유자효의 책 읽는 밤’
- 내용 :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집으로, 정민 한양대 교수와 김태희 다산 연구소 기획실장, 그리고 김영상 김영사 편집장이 출연하여 다산의 책과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

15.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학술 심포지움

- 일시 : 8월 13일, 10:00~18:00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19층)
- 주제 : ‘다산 사상과 서학’
- 주최 :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

16. 제3회 다산다인상 시상식 및 선비다례 시연회

- 일시 : 8월 25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남산국악당
- 주관 : 다산연구소
- 내용 : 다산다인상 대상에는 서양원(한국제다 대표), 공로상에는 故 박종한(대아 고등학교 및 차 박물관 설립자)과 이정애(정종다례 원장)가 선정됨. 이외 선비다례가 시연됨.

17. 길 위의 인문학, ‘다산에게 길을 묻다’

- 기간 : 8월 24일 ~ 25일
- 주제 : ‘다산에게 길을 묻다’

○주최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교보문고

○코스

-1일차: 해남 녹우당 → 보길도 세연정 → 낙서재 → 동천석실

-2일차: 강진 다산초당 → 백련사 → 사의재

18. 정조·다산 리더십 토크콘서트

○일시 : 9월 1일, 15:00~18:00

○장소 : 용주사 효행문화원

○주제 : ‘격쟁토론! 21세기 정조와 다산에게 길을 묻다’

○주최 :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 상생협력위원회

○주관 : 한신대, 용주사 공동

19. 제26회 남양주 다산문화제

○기간 : 9월 7일 ~ 9일

○장소 : 남양주 다산유적지 일원

○주최 : 남양주시

○주관 : 남양주시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

○내용 : ‘다산! 우리 시대의 대안,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Rest(휴식)’
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미술대회·백일
장·다산학술논문대전·서예대전 등이 진행됨.

20.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특별전시회

○기간 : 2012년 9월 7일 ~ 12월 20일

○장소 : 서울대 법과대학 역사관

- 주제 : ‘괴테와 다산과 법’
-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후원 : 다산학술문화재단

21. 파주북소리 2012, ‘다산의 날’

- 일시 : 9월 20일, 14:00~20:00
-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센터 (1층)
- 주제 : ‘다산탄생 250년에 배우는 다산학, 다산의 날’
- 주관 : 다산연구소

22.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일시 : 2012년 9월 22일, 13:00~19: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7층)
- 주제 : ‘다산 사상의 철학적 조명’
- 주최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주관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동양철학회

23. 길 위의 인문학, 다산탄생 250주년 기념 ‘길따라 역사따라 다산을 따라’

- 일시 : 10월 13일, 09:00~15:00
- 장소 : 다산 정약용 생가 및 묘역일대
- 주제 : ‘길따라 역사따라 다산을 따라’
- 주최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교보문고

○시행 : 남양주시 도농도서관

24.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서예전

○일시 : 10월 13일 ~ 11월 18일

○장소 : 한길책박물관 북하우스 전시장

○주제 : ‘조선사람 조선글’

○주최 : 다산연구소, 한길사

○주관 : 한길책박물관

25.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테마전

○기간 : 10월 30일 ~ 12월 16일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테마전시실

○주제 : ‘다산 정약용 -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보듬다’

○내용 : 정약용의 생애를 시간적 흐름, 그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학문 연구와 저술 등을 중심으로 주제화하여 전시함.

26.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11월 23일, 10:00~18:00

○장소 :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

○주제 : ‘다산 정약용과 서학 및 천주교와의 관계’

○주최 :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장 언론보도

월	날짜	언론사	작성자	제목	
1	2012.01.02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1〉그 깊고 아름다운 흔적들	
	2012.01.04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 정약용에게 21세기 길을 묻다	
	2012.01.04	조선일보	전병근 기자	르네상스맨, 정약용 올해 탄생 250주년 유네스코도 기념일로	
	2012.01.04	서울경제	정민정 기자	다산 탄생 250돌 사상·삶 다시 보다 — 다양한 학술행사 잇따라	
	2012.01.12	문화일보	김도연 기자	‘한반도역사재조명’ 학술대회 잇달아 정약용 탄생 250년·광개토왕 서거 1600년·독도복속1500년	
	2012.01.16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2〉다산이 말하는 국가 경영	
2	2012.01.30	동아일보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3〉미래 지도자상을 묻다	
	2012.02.13	동아일보	전성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4〉우리 경제의 길을 말하다	
	2012.02.24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두 아들 천리밖 있다면 다산, 죽으면 염습해달라 해	
	2012.02.27	동아일보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5〉정보화시대 지식경영법	
	3	2012.03.19	동아일보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6〉올바른 교육을 묻다
		2012.04.02	동아일보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7〉실학사상 詩로 말하다

	2012.04.05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다산이 꿈꾸고 그렸던 세상은... 7일 '다산 176 주기 묘제' 봉행 시작
	2012.04.15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다산의 삶·사상 150분짜리 판소리에 담고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
	2012.04.15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다산 정약용 다시 읽기] “경제 민주화·상향식 정치... 다산 사상에 이미 녹아 있어”
	2012.04.16	동아일보	오세영 소설가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8〉 ‘물 먹는’ 시기 견디는 법
	2012.04.28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	다산의 실학정신, 첨단시대에도 빛난다
	2012.04.30	동아일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9〉 ‘평생 공부’ 몸소 보여준 아버지
5	2012.05.01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애민·공동체 삶 중시한 정약용, 인간성 회복 보편적 가치 일깨워”
	2012.05.08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중) 다산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 — 임형택·백민정 교수 대담
	2012.05.08	경향신문	백민정 상관관대 HK연구교수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기고 — 시대를 앞서간 학문과 사상, 다산을 잇는 사유 실험 계속돼야
	2012.05.14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10·끝〉 1930년대, 실학사상 재조명 나선 동아일보
	2012.05.15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하〉 예술로 본 인간 다산
6	2012.06.13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 예술의전당-강진 다산기념관
	2012.06.20	동아일보	이진영 문화부 차장	[광화문에서/이진영] 89학번 정약용, 90학번 서유구

	2012.06.25	Korea Times	Kang Hyun-kyung	Irish scholar traces Dasan's Christianity
	2012.06.28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한국학 한류를 이끄는 학자들] (9)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 다산, 세계화 시대의 방향 제시
	2012.06.28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21세기 희망' 다산에게서 찾는다
7	2012.07.03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2012.07.03	한겨레신문	최원형 기자	다산 탄신 250돌 국제학술회의
	2012.07.03	한국경제		'세계 유산 다산...' 주제로 5~7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2.07.04	한국일보	오미환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 학술대회 '세계유산 —다산 프로젝트' 개막
	2012.07.05	한국경제	김재일 기자	[다산에게 길을 묻다] "다산의 실학 정신, 21세기에도 유효"
	2012.07.05	문화일보	최영창 기자	"다산의 事先理後 정신, 21세기에도 유효" 탄신250주년국제학술회의
	2012.07.05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문명의 전환기다산에게 길을 묻다> (종합) 다산탄신250주년국제학술회의개막
	2012.07.05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2012.07.05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 "만물박사 정약용, 그는 한국의 다빈치"
	2012.07.05	뉴시스	박문호 기자	다산 탄신 250주년 행사, 최광식 장관
	2012.07.05	뉴시스	박문호 기자	건배하는 최광식 장관과 정해창 이사장
	2012.07.05	뉴시스	박문호 기자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
	2012.07.05	뉴시스	김기태 기자	다산탄신 기념식 참석한 김 총리
	2012.07.05	뉴시스	김기태 기자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2012.07.05	뉴시스	김기태 기자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 축하하는 김 총리
	2012.07.05	뉴시스	김기태 기자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
	2012.07.05	뉴시스	김기태 기자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2012.07.05	뉴스스	김기태 기자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
	2012.07.05	뉴스1	손형주 인턴기자	김황식 총리,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식 참석
	2012.07.05	Korea.net	Hwang Dana	Dasan rediscovered: a glance at Joseon's prominent scholar
	2012.07.06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	“다산, 글로벌한 박학다재(博學多才)” “다산학, 세계질서에 공헌”
	2012.07.11	Korea Herald	Claire Lee	Tracing Catholic influence in Dasan's works, life
	2012.07.19	교수신문	윤상민 기자	한국적 지식 풍경 벗어나야 세계 지성 다산을 만날 수 있다. — 다산탄신250주년기념다산학국제학술회의풍경
	2012.07.31	경기신문	이화우 기자	다산 정약용 탄신250주 기리며
8	2012.08.20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시조·관소리로 돌아보는 ‘르네상스적 인간’ 정약용
	2012.08.20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수원 화성 쌓는 장면 박력 있는 소리 만날 것
	2012.08.22	경향신문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남산서 ‘한마음 큰잔치’
	2012.08.22	한겨레신문	정상영 기자	[이사람] “세계적인 음악학자 ‘정다산’ 소개합니다”
	2012.08.27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웃음 터졌다, 기발함 가득한 정약용의 가사에 ...
10	2012.10.02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의 모든 것’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2012.10.02	한국일보	황윤정 기자	‘정본 여유당전서’ 한국학 새 이정표 세워
	2012.10.04	중앙일보	배영대 기자	다산 정약용 연구 집대성 『정본 여유당전서』 나온다
11	2012.11.24	동아일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동아광장/박석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려야 할 ‘여유당전서’
12	2012.12.03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다산 문집 총정리 ‘여유당전서’ 74년만에 ‘정본’ 출간 지휘 송재소 교수

2012.12.17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학의 신기원 '정본 여유당전서' 18일 발간
2012.12.17	중앙일보	이재훈 기자	'정본 여유당전서' 전37권 나왔다, 다산 탄생250년
2012.12.19	서울신문	문소영 기자	다산학의 집대성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
2012.12.19	한겨레신문	최원형 기자	다산 저작 집대성한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2012.12.20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다산 “죽음은 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버섯”
2012.12.20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정해창 이사장 “다산의 애민정신 이어받아야”
2012.12.20	문화일보	최영창 기자	茶山 학문의 결정체…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
2012.12.21	동아일보	신성미 기자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죽는다는 것은 하루살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
2012.12.25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실학 집대성 정약용 저작 모음집 '정본 여유당전서' 38권으로 출간

※참고사항

언론보도 자료는 2012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그 외 기념사업과 관련된 주요 언론보도를 추가하였다.

동아일보, 2012.01.02(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 <1> 그 깊고 아름다운 흔적들

‘애민’ 가슴에 품고, 조선의 르네상스 꿈꾸다



다산 정약용 삶의 현장(맨위부터 시계 방향) 수원 화성 창룡문, 남양주 여유당 현판, 남양주 다산 생가, 강진 다산초당 차부뚜막, 강진 다산 초당

《유배생활의 시련 속에서도 실학을 집대성하고 19세기 초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이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았다. 다산은 정치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르네상스인이었으며 뜨거운 애민정신과 비판정신으로 늘 역사와 백성을 생각한 인물이었다. 그의 삶과 업적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한다. 첫 회에선 다산 유적지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의 흔적을 만난다.》

다산 정약용을 연구해온 종교철학자 금장태 전 서울대 교수는 다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다산은 조선사회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변혁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 그의 학문은 출발부터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탐험이었다. … 다산의 평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22세 때인 1784년 이 벽을 만나 천주교신앙과 서양과학에 빠져들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의 벽을 깨뜨리고 아득하게 넓고 눈부시게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게 된 점이다. 또 하나는 39세 때인 1801년부터 18년간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사실이다.”

금 교수의 말대로 다산의 흔적은 깊고 아름답다. 우리 국토 곳곳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다.

○ 남양주, 아름다운 시작과 끝

다산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



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 인근이다.

다산은 자신의 집에 여유당(與猶堂)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여(與)함이여,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猶)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조심조심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의미다.

정조와 새 시대를 꿈꾸었으나 정조의 승하와 함께 다산은 시련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여유당이란 당호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수원 화성, 다산과 정조의 꿈

1789년 27세에 벼슬을 시작한 다산은 1795년 정3품 당상관에 올랐다. 그에 대한 신임이 각별했던 정조는 다산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하나가 수원 화성 축조였다.

다산은 1792년 화성을 설계했다.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해 성의 높이나 거리 등을 측량함으로써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화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꾼들이 힘겹게 돌을 지고 나르는 것을 목격한 다산은 2년 뒤 거중기를 만들었다. 많은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고 싶지 않았던 다산과 정조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과학자였다. 천문 기상 의학 수학 기하학 농학지리 물리 화학 등 그의 관심사엔 한계가 없었다. 1789년 27세 때 설계한 한강 배다리는 배 60여 척을 강물에 띄우고 2000장이 넘는 널빤지를 깔아 만들었다. 배로 건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해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화성시 현릉원에 갈 때 이용했다. 이 모습은 화원들



이 정조의 화성 행차 모습을 그린 ‘화성능행도’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 포항에서 강진으로, 유배의 시절

정조가 승하하자 정치는 급변했다. 외척이 발호하고 정치적 복수와 음모가 난무했다. 1801년 10월, 포항에 유배돼 있던 정약용이 서울 의금부로 압송됐다. ‘또 누가 나를 죽이려는가.’ 가장 큰 걱정은 폐족(廢族)이었다. 그의 편지글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다. 일곱 달 전 신유교육에 연루돼 셋째 형 정약종과 매형 이승훈이 처형당했다. 둘째 형 정약전도 유배 중인데 또 무슨 일이었을까. 의금부 옥사에는 이미 정약전이 압송돼 있었다. 이른바 황사영백서사건. 정약용의 조카사위 황사영이 조선의 천주교 박해 실상을 비단에 적어 중국의 프랑스인 주교에게 보내려다 적발된 사건이다.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져 죽음을 면했지만 형제는 다시 유배길에 올랐다.

○ 강진, 세상과의 진정한 만남

강진에서 처음 자리 잡은 집에 사의재(四宜齋)라는 당호를 붙이고 4년 동안 지냈다. 사의재란 ‘생각, 용모, 언어, 동작을 마땅히 바르게 하는 방’이라는 뜻.

마음을 다잡고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희망의 끈으로 삼았다. 큰아들 학연에게도 편지를 썼다. “폐족일수록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머릿속에 책이 5000권 이상 들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느니라.”

1808년 봄 만덕산 다산초당으로 옮겼다. 만덕산은 차나무가 많아 다산(茶山)으로 불렸다. 이 산이 좋아 자신의 호를 다산으로 정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오가며 혜장 스님, 초의 선사와 함께 차를 즐겼다. 다산이 오갔던 길,

다산초당에서 백련사에 이르는 산길엔 지금도 동백나무숲과 차밭이 있다.

다산은 초당에서 1818년 해배(解配)되기까지 10년을 보냈다. 1500권의 책을 쌓아놓고 치열하게 읽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아방강역고’ 등 그의 책 500여 권은 대부분 다산초당에서 태어났다. 제자 18명을 길렀고 이들과 초당에 정원을 꾸몄다.

다산초당에 가면 ‘다산동암(茶山東庵)’ 등 다산의 친필 현판을 만날 수 있다. 다산동암 건물엔 추사의 ‘보정산방(寶丁山房)’ 현판도 걸려 있다. ‘정약용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뜻으로 그에 대한 추사의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

1813년 여름, 부인 홍 씨가 해진 치마를 보내왔다. 다산은 그 비단 치마폭 위에 그리움을 흠뻑 담아 그림을 그렸다. 매화꽃 핀 나뭇가지에 참새 두 마리. 다산은 한 편에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을 적어 넣었다. ‘부인이 해진 치마 여섯 폭을 보내왔다. 오래되어 붉은색이 다 바랬다. 그걸 오려 족자 네 폭을 만들어 두 자식에게 주고, 그 나머지로 이 작은 그림을 그려 딸아이에게 전하노라.’ 바로 ‘매화쌍조도(梅花雙鳥圖)’다. 매화와 참새는 그 모습이 맑으면서 처연하다. 먼 데를 바라보는 참새의 모습이 안쓰럽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모습이다. 다산에게 강진 유배 18년은 그리움이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다산 정약용에게 21세기 길을 묻다

탄생 250주년 맞아 생애·사상 재조명



올해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해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던 다산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술한 저작을 남긴 대학자이자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한 과학자였다.

역사학계는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잇달아 연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7월 5~7일 3일간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국제학술회의는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 지식의 소통과 변모’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과 주자학’ ‘다산과新民本’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 사상 속의 다산’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크게 8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제학술회의에는 영국의 한국학 연구자인 앤더스 칼슨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SOAS) 교수, 정지승(鄭吉雄) 대만대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동원 카이스트 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심경호 고려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이주행 본부장은 4일 “북한에서도 1962년에 다산 탄생 200주년 행사를 크게 열었을 정도로 다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었다”면서 “북한 학자 1~2명을 학술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또 4월과 10월에 ‘다산 음악제’를 열고, 10월에는 다산의 저작집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를 완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 서예사 특별전 —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전’ (6월 9일~7월23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실학박물관 특별전’ (4~9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유네스코도 다산 탄생 250주년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 (Anniversaries with which UNESCO is associated in 2012)’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약용은 매우 중요한(very important) 한국의 철학자”라면서 “그의 업적과 사상은 한국 사회와 농업, 정치 구조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다.

yunzhen@yna.co.kr

조선일보, 2012.01.04(수)

르네상스맨, 정약용 올해 탄생 250주년 유네스코도 기념일로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강진군청 제공 ‘조선후기 최고의 실학자’ ‘500여권 서책의 저술가’ ‘수원 화성의 설계자’, ‘거중기의 발명가’ ...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수식어는 끝이 없다. 그가 태어난 지 올해로 250년, 2012년 한 해는 이 19세기 ‘르네상스맨’이 되살아나는 행사들로 넘친다.

세계도 함께 기억한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은 특별히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Anniversaries with which UNESCO is associated in 2012)’로 지정돼 지구촌이 함께 기린다. 유엔 산하 교육·문화·과학 기구인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의 이념·가치에 맞는 세계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선정해왔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산 탄생 250주년은 작년 10월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의보감 출간 400주년(2013년)과 함께 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에는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프랑스·1862~1918) 탄생 150주년, 장 자크 루소(프랑스·1712~1778) 탄생 300주년, 헤르만 헤세(독일·1877~1962) 사망 50주기 등이 함께 선정됐다.

다산은 조선후기 실학 사상가로서 사회악을 분석하고 개혁안을 제시한 학자로 공을 인정받았다. 평등사상에 입각한 토지분배와 능력에 따른 직업배



치 등을 주창했으며 18년간 정치적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정치구조 개혁, 부의 공정 분배 등에 관한 수많은 책을 저술했다는 업적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올랐다.

국내에서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각계 인사들로 대규모 기념사업회(위원장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구성해 갖가지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봄을 여는 다산 음악제부터 국립박물관과 실학박물관의 전시회, 국제학술대회까지 행사들이 줄 서 있다. 그중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은 학술적 의미가 남다르다. 여유당전서는 그전까지 다양한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 154권76책을 정인보 등이 정리해 1936년에 발간, 다산학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됐고, 다산의 저작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거나 정작 다산의 저술인데도 누락된 것이 보고됐다. 이번에 새로 내는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한글체제에 맞게 가로쓰기로 편집한다.

7월 5~7일에는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회의도 연다. 프랑스의 동양철학 연구 대가인 프랑수아 줄리앙 파리 디드로대학 교수와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다산 관련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모인다. 북한 학자 초청도 추진 중이다. 다산은 남북한에서 모두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북한에서도 기념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탄생 250주년 행사계획

기간	행사
4월 중	다산 봄 음악제(국립국악원)
4~9월	실학박물관(남양주) 특별전
6월9일~7월23일	서울 예술의전당 ‘다산 종합전’
7월5일	탄생 250주년 기념식전
7월5~7일	국제학술회의 (서울 프레스센터)
10월 중	정본 ‘여유당전서’(총37권) 출간
10월 중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10월 중	다산 가을 음악제(한국의 집)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 다산 음악제에서는 다산의 사상과 삶을 창작 판소리로 집대성한 150분짜리 ‘다산가’와 창작곡 ‘다산이여 다산이여’ 등

을 선보인다.

최근 ‘다산의 재발견’(휴머니스트)을 낸 정민 한양대 교수는 “다산은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한 애민사상가로 익히 알려진 상태이지만 건축가나 엔지니어 같은 르네상스맨적 면모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각 분야 전공자들이 다각도로 조명해 이 시대의 풍요로운 문화 콘텐츠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병근 기자

서울경제뉴스, 2012.01.04(수)

다산 탄생 250돌 사상·삶 다시 보다

다양한 학술행사 잇따라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은 올해 그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학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해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던 다산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숱한 저작을 남긴 대학자이자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한 과학자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7월 5일부터 사흘간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 지식의 소통과 변모, 다산과 주자학,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크게 8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회의에는 영국의 한국학 연구자인 앤더스 칼슨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SOAS) 교수, 정지승 대만대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동원 카이스트 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석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또 4월과 10월에 ‘다산 음악제’를 개최하고 10월에 다산의 저작집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를 완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 서예사 특별전 —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전’(6월9일~7월23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실학박물관 특별전’(4~9월) 등의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네스코도 “정약용은 매우 중요한 한국의 철학자로서 그의 업적과 사상은 한국 사회와 농업, 정치 구조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다산 탄생 250주년 탄생일(6월 16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지정했다.

정민정 기자 jminj@sed.co.kr

문화일보, 2012.01.12 (목)

‘한반도 역사 재조명’ 학술대회 잇달아

정약용 탄생 250년 · 광개토왕 서거 1600년 · 독도 복속 1500년

올해 임진년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탄생 250주년, 광개토왕 서거 1600주년, 신라장군 이사부의 독도 편입 1500주년의 뜻깊은



이사부 장군의 국가표준 영정.



한국화가 이종상 화백이 그린 광개토왕 표준 영정.

하다. 정약용, 광개토왕, 이사부 등 대표적인 위인과 역사를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등이 올해 잇달아 열린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해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숭한 저작을 남긴 대학자이자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발명한 과학자였다.

역사학계는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연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오는 7월5일부터 사흘간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 지식의 소통과 변모, 다산과 주자학,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크게 8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회의에는 영국의 한국학 연구자인 앤더스 칼슨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SOAS)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동원 KAIST 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석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북한 학자 1~2명을 학술회의에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단은 또 4월과 10월에 ‘다산 음악제’를 개최하고 10월에 다산의 저작집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를 완간할 계획이다. 정본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이밖에 ‘한국 서예사 특별전 —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전’(6월9일~7월23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실학박물관 특별전’(4~9월) 등의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네스코도 “정약용은 매우 중요한 한국의 철학자로서

그의 업적과 사상은 한국 사회와 농업, 정치 구조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다산 탄생 250주년 탄생일(6월16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지정했다.

광개토왕이 서거한 지 1600주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와 관련, ‘광개토왕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오는 8월30일부터 이틀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광개토왕 비문의 세계’, ‘광개토왕시대의 고고학적 고찰’,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 3부로 진행되는 학술회의에는 경테화(耿鐵華) 중국 통화사범대 교수, 김택민 고려대 교수, 이우태 서울시립대 교수, 하마다 고사쿠 일본 규슈(九州)대 교수,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등 한·중·일 학자 10여명이 참가한다.

이사부를 재조명하는 ‘독도’ 관련 학술회의도 주목할 만하다. 신라시대 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지 150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학계는 독도 편입 15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독도학회는 올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양한 근거로 제시하는 독도학술대회를 울릉도 등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이사부학회,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오는 8월1~4일 삼척에서 이사부 장군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또 같은 달 3~5일에는 삼척에서 이사부 축제도 연다. 삼척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기 위해 떠났던 출발지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또 올해 전국 50여 개 고등학교에서 ‘이사부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특강,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생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탐방 프로그램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영정.
문화일보 자료사진

진행할 예정이다.

신라 내물왕 4세손인 이사부 장군은 실직주(지금의 삼척)와 하슬라주(강릉)의 지방 군주로 있으면서 512년 우산국을 정복해 울릉도와 독도를 최초로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동아일보, 2012.01.16(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2>

다산이 말하는 국가 경영

다산 “성기호설로 한류 날개 달고… 손상익하로 고루 잘살게 하라”



빈부격차 커지고 청나라 정보 넘쳐나던 19세기 초 조선시대를 보며… 사회 양극화 심화되고 목소리 다양해진 21세기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 1836)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 르네상스의 끝자락에 속한다. 양란(임진왜란 병자호란) 후 큰 전쟁 없이 청나라와는 사대,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던 시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양반이 급증했고 빈부 격차가 심화됐으며 민생은 어려워졌다. 중국으로부터는 수많은 저작물이

쏟아져 들어와 온갖 정보가 넘쳐났다. 21세기에 다산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다산이 활동했던 시기와 지금 한국의 모습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해외의 기술을 모방하기보

다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도 같다. 다산을 연구해온 종교철학자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산 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산의 사상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고 권력자 측근부터 법 지켜라”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에 다산이 던져주는 화두는 ‘분배’와 ‘법치’다.


다산은 ‘전론(田論)’에 “임금과 수령의 역할은 백성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것을 덜어내 가난한 자에게 보태 주어(손상익하·損上益下) 그 살림을 군 일대(군수와 전직 연천현감의 죄를 고발한 상소문에서 “이들은 (왕이) 총애하고 비호함을 믿고 이와 같이 방자했다. 법의 적용은 마땅히 왕의 가까운 신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장태 교수는 “다산이 살던 당시 양반은 법을 ‘이용하려고’ 했고 백성은 법을 ‘피해하려고’ 했다. 다산은 특히 왕의 측근부터 국법을 지켜야 백성들도 지킨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목민관의 공정한 임용과 평가와도 연결된다. 김문식 교수는 “다산은 배경이나 연줄이 아니라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인사고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좋아하는 걸 하게 하라”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신동력을 찾는 이들은 다산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기호설은 인간이 기호, 즉 좋아하는 것을 가



지고 태어나 이를 추구한다는 뜻을 담았다. 전성호 교수는 “다산의 성기호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표방한 사상으로 현대경제학의 관점에서 기호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일에 대한 성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동기 부여가 되며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최고의 창의성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 열풍도 아이돌 가수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가 다산의 ‘지식경영’이다. 정민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다산의 지식경영법은 오늘날에도 효율적인 공부법이자 프로젝트 수행법이며 기업경영 및 국가행정에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18세기 조선에는 청나라의 백과전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널려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배열해 체계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주요 임무였으며 다산은 수많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정리해내는 뛰어난 지식경영가였다. 그는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는데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작업한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주목받는 개념인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작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정 교수는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단계, 효율적인 작업,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기에 엄청난 양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위국애민(爲國愛民)’이라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점이 다산 작업의 뛰어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 “중심은 잡되, 편견 없이 받아들여라”

정보사회의 심각한 폐해 중 한 단면으로 ‘의견의 양극화’가 꼽힌다. 다산은 중용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양극단의 주장을 종합한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면모는 ‘맹자’를 주해한 ‘맹자요의(孟子要義)’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예론(技藝論)’에 잘 드러난다.

‘맹자요의’는 유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배척받아온 양주와 목적의 견해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자세를, ‘기예론’은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성인의 도는 구애받지 않고 막히지 않고 의로움에 따른다. 그러므로 시중(時中)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양주와 목적의 의로움이 함께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맹자요의)

“중국의 법식과 제도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서로 묻지도 않고 오직 예전의 것에 안주하고 있다.”(기예론)

다산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젊은 시절 천주교 신앙에 빠져들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천주교의 가치관을 적용해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석해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동아일보, 2012.01.30(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3〉미래 지도자상을 묻다

“정치는 바로잡는 것… 인재를 키워 중심 잡는 ‘21세기 정조’ 뽑아라”

《역사를 돌아보면 임진년엔 외국과의 전쟁이나 분쟁이 잦았다. 하지만 충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임진년의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인 분열의 양상이 ‘임진내란’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경세학(經世學) 연구서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상을 제시했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에게 분열된 국론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 새로운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8~19세기 조선시대사 전공자로 제왕학의 관점에서 다산과 정조를 연구해온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다산이 남긴 여러 글에서 답을 찾았다.》

○ 지도자의 마음 가짐은? ‘위국애민’ 통치 목표로 삼아야



다산이 생각한 국가 지도자 모델은 정조였다. 200년 전 다산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왼쪽은 정조 영정. 동아일보DB

다산은 ‘신아구방(新我舊邦 · 묵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함)’이라 하여 국가의 전면적 개혁을 꿈꿨다. 그의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상 역시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기반엔 ‘위국애민(爲國愛民)’이 있었다.

“전 삭녕(현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일대)군수 강명길은 탐욕이 넘치고 인색함이 심한 자입니다. 백성의 소송과 관청 업무는 뒷전이고, 식비와 녹봉을 후려쳐 차지하고 멋대로 거둬들였습니다. 향청(鄉廳 · 조선의 지방자치기관)의 임원은 뇌



물 바치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의 짐 꾸러미가 너무 무거워 나룻배로 실어 나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794년 다산이 정조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고, 백성의 먹을거리를 걱정한 정조는 다산을 암행어사로 파견했다. 다산의 보고를 받은 정조는 부평부사로 부임해 있던 강명길을 즉시 파직했다.

정치의 목적도 위국애민이었다. 다산은 “정치(政)란 바로잡는 것(正)”이라고 풀이했다. 토지를 개량해 백성에게 고루 나눠주고, 유통을 원활히 해 물자를 통하게 하며, 군대를 조직해 죄 있는 자를 성토하고, 멸망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모두 정치라고 했다. 또 백성의 고혈을 짜내 관리들의 배를 채우는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위국애민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현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 지도자가 인재 쓸 땐 실적 상세히 평가 후 인사 반영

다산은 올바른 지도자라면 인재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정조는 친위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립하고 초급 관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초계문신(抄啓文臣)제’를 운영했다. 다산은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선발됐기에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훗날 다산이 유배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규장각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관리의 등용과 업적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대부가 귀하게 되려는 욕구(貴欲)와 서민이 부자가 되려는 욕구(富欲)를 함께 충족시켜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봤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좋은 사대부가 떠날 것이고, 재정을 모으는 일에 절제가 없으면 서민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파, 가문, 출신 지역 등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특히 다산은 실적의 평가를 중시했다. 태평시대라 불리던 요순 정치의 핵심이 ‘고적(考績·인사 고과)’에 있다고 봤다. 다산은 실적을 보고하는 단계와 보고한 실적을 평가하는 단계를 구분했다. 보고는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접 보고하면 거짓으로 얼굴빛을 꾸밀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위정자의 고과는 매해 6월 말과 12월 말 여덟 글자의 서술로 하는 게 관례였다. 다산은 “이 방식이 너무 간략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 평가 조목을 세분하고 업적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은 실적을 9개 강령, 54개 조목으로 나눠 보고하고, 평가는 9등급으로 나눠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평가항목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최종적으로 정리돼 있다.

다산은 “지도자는 반드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 역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황해 곡산 부사 시절 백성에게 균포를 거둘 때는 관아에서 사용하던 자를 버리고 국가에서 규정한 자를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 자의 길이를 늘려 잉여분을 착복하려던 서리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였다. 호적도 새로 작성했다. 노련한 사람을 선발해 관할구역 내의 인구와 재산, 가옥, 우마(牛馬), 부역 상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총괄하는 표로 만들어 관내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이후로 통계에 변화가 있으면 직접 표를 수정했고, 관아에서는 이 통계에 근거해 세금을 거뒀다.

○ 지도자가 판단할 땐 여러 사람 의견 들을 줄 알아야

다산이 생각한 국가 지도자 모델은 정조였다. 다산은 정조에게서 학문뿐

아니라 위정자로서의 지도력도 함께 배웠다. 정조는 다산을 암행어사로 보낼 때 여러 명의 암행어사를 함께 파견했다. 한 사람이 판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암행어사들이 복귀하면 정조는 대신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다. 대신들의 견해를 두루 들은 뒤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정조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사람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의 개혁가적 면모가 가장 잘 나타난 글로 알려진 책문(策文) 역시 정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정조의 몫이었다. 정조는 선입견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중심을 잡고 결론을 내리는 지도력을 보여줬다. 이는 다산이 기대하는 지도자상이었다. 정계에서 밀려난 후 다산은 정조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며 경세학 저술에 매달렸다. 하지만 다산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200년 전 다산이 기대했던 국가 지도자가 21세기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kmsik@dankook.ac.kr



김문식 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

〈4〉우리 경제의 길을 말하다

한국 역사상 4차 성장기... '1인 창조기업' 으로 동력 키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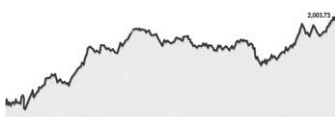
“물질 자본이 아닌 창안적인 인간 자본을 키워라!”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행상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세기 들어 상업의 규모가 커졌고 상인 조직은 체계화됐다. 당시 조선 사회의 새로운 부를 창출한 건 상인이었고, 그 기반엔 분업이 있었다. 김홍도의 '길 떠나는 상단' (왼쪽)과 '부부 행상'. 푸른역사 제공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의 경제 성장은 항상 전쟁 이후 평화기에 경제 대국과 적극적인 교역을 하며 이뤄졌다. 1차 성장은 11~13세기 송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했고, 2차 성장은 15세기 명나라와 일본의 중계 무역을 주도하면서 이뤄졌으며, 3차 성장은 17~18세기 청과 교역하며 진행됐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은 제4차 성장 국면에 해당한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은 3차 성장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든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4차 성장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조선 중후기 경제를 전공했고 국제 학술지 '경제사 저널(Journal of Economic History)'에



6개월 만에 2,000 선을 회복한 2월 8일 코스피.

논문 '애덤 스미스(1723~1790)의 관점에서 바라본 17~19세기 한국 경제의 흥망'을 발표한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국경제사)가 다산의 경제 혁신 사상에서 그 답을 찾았다.》



○ 좋아하는 걸 하게 하라


맹자는 실천을 중시한 유학자다. 다산의 ‘맹자요의(孟子要義·다산이 ‘맹자’의 핵심을 정리한 책)’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세적 관념의 성리학(性理學)에서 벗어나 근대적 심성의 성기호설(性嗜好說)로 전환할 것을 설파한다. 다산은 성(性)을 리(理)에 가두는 기존의 성리학 체계로는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학 주체의 심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봤다. 성기호설은 인간이 기호, 즉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 이를 추구한다는 뜻. 개개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 한국 경제에 필요한 인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창안하는 사람이다. 창안은 인간이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마음껏 나타날 수 있다.

○ 인간 중심의 창조적 사회 분업

‘목민심서’의 ‘권농조’는 농업을 일반농, 과수농, 삼포농, 방직농, 산림식재농, 목축농 등으로 세세히 분류했다. 다산은 이렇게 분업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시장에서 만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잉여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분업과 특화의 기반에는 기술 개발이 있었다. 다산은 ‘기예론(技藝論)’을 통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8세기 조선은 분업과 완전경쟁시장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물건 값이 내려가면서 백성들은 예전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세기 조선의 시장은 이 같은 기능을 상실하고 소수 권력자가 다수를 약탈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다산의 사민(四民·‘사농공상’을 뜻함)분업론과 기예론은 애덤 스미스의 사회적 분업론(분업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늘어난다는 이론)과 그 논리적 맥이 닿아 있다. 이들의 이론은 영화 ‘모던타임즈’와 같은 물질적, 기술적 의미의 분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창의성을 가진 인간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간적 의미에서의 분업이다.

21세기형 직업으로 각광받는 1인 창조기업이 바로 18세기 다산이 지향한 바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가내 수공업은 품질과 색,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1인 창조기업 역시 문화와 정보기술(IT), 전통식품,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가 20세기 물질 자본의 시대에서 21세기 인간 자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교역은 천하의 통의(通義)

“우리나라는 남북이 아주 멀고 산택(山澤)이 얽히어 토질이 각각 다르므로 팔도에서 함께 풍년이 드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건륭 경술년(1790년) 이후 지금(1821년)까지 한 번도 없었다.” (‘경세유표’)

다산은 30년 동안 조선의 기후 변화와 토질, 작황 등을 관찰한 후 “남북 지역 간 교역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뭄이 들면 가뭄에 강한 북측 곡식이 남으로 내려오고, 홍수가 들면 홍수에 강한 남측 곡식이 북으로 이동해야 더 많은 백성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조선 전체의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전국에서 수확된 곡식 800만~1000만 석을 관리할 정도로 ‘부유’했다. 영조 때 설립된 교제곡(交濟穀)은 북의 원산창과 남의 포항창 곡식이 서로 교역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필자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주의 체제



가 아닌 남북 분단에 있다고 본다. 1990년대 흉수가 빈발하면서 북한에 식량위기가 왔지만 남한에선 풍년이 계속됐다. 반면 가뭄이 심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조가 됐든, 교역이 됐든 간에 한국의 곡식을 북으로 보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곡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북한과 반드시 교역해야 한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 다산은 남북 간 교역뿐 아니라 국가 간 무역을 강조했다. 실학자 박제가는 ‘북학의’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역하는 건 천하의 통의(세상에서 널리 통하는 정의와 도리)”라 했고, 다산은 이런 북학파를 예찬하며 “중국과의 기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찬반 논쟁이 뜨거운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자본주의 체제 유지하려면 정직해야

다산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통해 정직을 수없이 강조했다. 정직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윤리 경영의 핵심 요소다. 특히 타인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요즘처럼 인적 자본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정직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정직성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해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한국의 인적 자본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다산은 성기호설을 주장했지만 무작정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말한 건 아니다. 욕(欲)과 낙(樂), 성(性)의 조화 및 공동체와의 공감도 강조했다. 이는 에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한 이기심과 공감의 균형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공감과 이기심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산의 경제 사상은 사회 정의를 위한 대안도 될 수 있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mingoo@aks.ac.kr



전성호 교수

동아일보, 2012.02.24(금)

“두 아들 천리밖 있다던 다산, 죽으면 염습해달라 해”

정약용과 제자 황상의 인연 담은 편지 등 발견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과 그가 가장 아낀 제자로 알려진 치원 황상(치園 黃裳 · 1788~1870)의 아름다운 인연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굴됐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 · 1783~1859)이 황상에게 보낸 친필 편지 22통과 다산의 손자 정대무가 쓴 편지 1통,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아들 김상무가 보낸 편지 2통 등을 묶은 서첩 ‘치원진장(치園珍藏)’, 황상의 산문집 ‘치원소고(치園小藁)’와 초서집(초書集 · 베껴 적은 책) ‘치원총서(치園叢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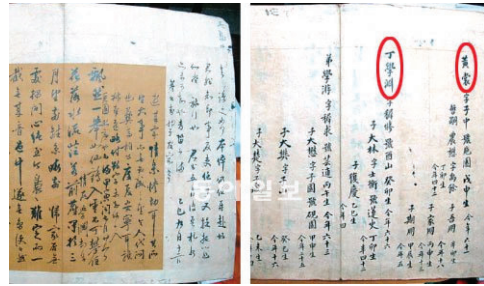
이 자료는 황상의 사촌이자 함께 다산에게 배웠던 황지초(黃之楚)의 5대손

황수홍(73) 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최근 정민한양대 국문과 교수에게 연락해 그 존재를 알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다룬 책 ‘삶을 바꾼 만남’ (문학동네)을 펴낸 바 있다.

1802년 다산은 유배지인 전남 강진의 주막집에 서당을 차린 후 지방 아전의 아들인 15세 소년 황상을 만나 제자로 삼았다. 이후 황상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다산의 ‘삼근계(三勤戒)’를 가슴에 새기며 평생 공부에 전념했다. 정학연과도 1805년 강진에서 처음 만난 후 학문과 마음을 나누는 벗으로 지냈다.

‘치원진장’에 실린 정학연의 편지에는 황상에 대한 그리움과 곤핍(困乏)한 살림에 지병으로 고생한 사연이 구구절절 담겨 있다. 정 교수는 “정학연의 문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친필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책 중간에 수록한 정황계(丁黃契)의 계권(契卷) 원본은 정씨와 황씨 가문의 우의를 약속한 증서로, 1848년 정학연과 황상이 두 벌을 작성해 한 벌씩 나눠 가졌다. 정씨 집안이 보유한 증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다.


‘치원소고’에는 황상이 정학연에게 보낸 편지 ‘상유산선생서(上西山先生書)’가 실려 있다. 여기엔 다산의 서당이 있던 주막집 앞에서 황상이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다 다산을 처음 만난 과정과 두 사람이 사제로서 맺어온 인연이 생생히 나타난다. “마치 (다산의 가르침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으니, 어찌 (제 마음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가 들 때는 ‘네 예장(禮狀)은 나 아니면 누가 쓰겠니’ 하시고는 써



‘치원진장’에 실린 정학연의 편지(왼쪽). 다산의 성모를 위해 상경했다가 전남 강진으로 돌아간 황상에게 잘 귀가했는지 등 안부를 묻고 있다. 정약용 가문과 황상 가문의 우의를 약속한 정황계의 계권 원본(오른쪽). 황상의 이름과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다(붉은 원 안). 정민 교수 제공



다산 정약용



주셨지요. 또 선생님은 ‘내가 능히 하늘 해를 보지 못한 채로 이 땅에서 늙어 죽게 된다면, 두 아들이 모두 천리 밖에 있으니 연습하는 절차는 너밖에 행할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산이 칭찬한 황상의 글 ‘길기론(吉氣論)’과 정학연이 칭찬한 황상의 기행문 ‘유송악산기(遊松岳山記)’ 전문도 ‘치원소고’를 통해 처음 전모를 드러냈다. 또 다산의 또 다른 제자로 알려진 김세준(金世俊)의 전기도 실렸다.

초서집 ‘치원총서’ 두 책은 황상이 ‘장자(莊子)’와 ‘이아주(爾雅注)’를 베껴 쓴 것이다. 황상은 다산의 말에 따라 평생 책을 베껴 적는 초서 작업을 했다. 쌓아둔 초서집의 높이가 자신의 키를 넘길 정도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실물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

정 교수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통해 다산과 황상 두 사람 및 두 집안의 인연은 물론이고 다산학단(茶山學團)의 모습과 황상 문학의 진면목도 새롭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동아일보, 2012.02.27(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5〉 정보화시대 지식경영법

“지식 다스리면 뭐든 할 수 있어” … 수원 화성 30개월 만에 쌓아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이 살던 18세기 조선에는 청나라의 백과전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널려 있는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배열해 체계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 바꾸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주요 임무였다. 다산은 이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도 정보는 차고 넘친다. 어떻게 하면 다산의 지식경영법을 오늘날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 고전문학을 전공했고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다산의 재발견’ 등을 펴낸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답을 보내왔다.》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 일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로드맵에 따라 과학적으로 작업한 다산의 지식경영법은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그래픽 속 건축물은 수원 화성. 그래픽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다산은 막강하다.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 경학이나 경제학은 그렇다 쳐도 건축설계나 토목 등 자연과학 분야까지도 다뤘다.

정조가 1789년 사도세자의 능원인 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해 한강에 배다리를 놓으라고 다산에게 명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다산은 거칠기 짝이 없는 몇몇 기록만 참고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다산은 건축설계자나 토목기술자가 아니었지만 2년 6개월여 만에 화성 축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각 분야 전문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도 하지 못할 일을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었던 다산이 척척 해냈다.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 다산이 꿰고 있던 엑셀의 원리

다산의 작업 과정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핵심 가치를 잊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할까’를 물으며 작업의 성격을 파악했고 목표를 설정한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나면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경학 연구든 건설현장이든 똑같은 원리, 동일한 과정이 적용됐다. 예를 들면 이렇다.

1795년 현릉원에 나무 심는 일이 끝났다. 그러자 정조는 다산에게 “논공 행상을 할 것이니 지난 7년간 여덟 개 고을에 심은 나무가 모두 몇 그루인지, 어느 고을이 가장 많이 심었는지 보고하라”고 명했다.

다산은 먼저 나무 심기와 관련된 공문을 다 모았다. 수레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뒤죽박죽으로 섞인 공문을 고을별 날짜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고을별로 표를 하나 만들어 가로 칸에 나무 종류, 세로 칸에 심은 날짜, 교차된 칸에 몇 그루를 심었는지 적었다. 이틀 만에 고을별 통계가 잡혔다.

다시 표 한 장을 만들었다. 이번엔 가로 칸에 고을 이름, 세로 칸에 연도, 교차된 칸에 고을별로 정리한 나무 수의 연도별 합산 결과를 옮겨 채웠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현릉원에 심은 나무는 총 12만 9772그루였다. 정조의 명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고을별로 통계를 낸 단 한 장의 보고서(‘현릉원식목부’)를 올렸다. 정조는 혀를 내둘렀다. 오늘날 사용하는 ‘엑셀’의 원리를 다산은 이미 완벽하게 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예는 너무 많아 일일이 예거하기 어렵다. 다산이 황해도 곡산부사 시절 마을별로 가로 칸에 가구주 이름, 세로 칸에 재산 상황을 기록한 ‘침기부총횡표(砵基簿縱橫表)’로 악명 높은 곡산 아전들의 기강을 단번에 휘어잡은 일은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 같은 표는 오늘날 최고경영자(CEO)가 인사 관리를 할 때도 유용하다.



○ 18세기에 실천한 집단지성

다산의 저술 500권은 오늘날 책으로 치면 70, 80권 정도다. 방대한 작업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저술보다 편집서가 대부분이다. 또 제자들과의 집체 작업을 통해 저술이 이뤄졌다. ‘목민심서’도 스승의 지침에 따라 제자들이 작성한 수만 장의 카드를 바탕으로 편집했다. 그렇다고 다산의 역할이 작은 건 결코 아니었다. 다산은 작업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문목(問目)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아들과 제자들이 실무작업을 했다. 1차 정리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는 것도 다산의 몫이었다. 제자들도 단순작업만 한 게 아니라 다산의 방식을 옆에서 보며 배웠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주목받는 ‘집단 지성’의 작업 방식과 비슷하다.

다산은 “잘 알아야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문을 배우는 기초 단계부터 제자들에게 읽은 책의 중요 부분을 베껴 쓰는 초서(抄書)를 시켰다. 책을 읽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도록 했고 스승과의 문답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제자들의 공부를 누적하고 증폭하기 위한 다산 특유의 교육 방식이었다. 필자는 최근 다산의 제자 윤종삼(尹鍾參)이 스승과 주고받은 공부 내용을 기록한 ‘소학주관문답(小學珠串問答)’ 자료를 전남 강진에서 새로 찾은 바 있다.

다산의 제자 훈련은 혹독했고 요구 수준도 높았다. 조금만 게으르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다독이는 글로 분발시키고 격동시켰다. 제자별로 써준 각종 증언(贈言·드리는 말씀)들은 맞춤형 교육의 전형이다. 역할을 분담하여 뿔뿔 돌아가던 다산초당의 모습은 시골의 이름 없는 서생들이 조선 최고의 학술집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는 ‘다산은 위대하다’면서 자꾸 다산을 박제화하고 틀에 가둔다. 배울 것은 안 배우고 죽은 지식만 답습한다. 다산은 ‘천자문’을 비판하면서 대

안 교과서로 ‘아학편(兒學編)’을 제시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날 한자교육 현장에 ‘아학편’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관습에 젖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다산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원리를 응용해 현재화해야 위력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천하의 다산도 ‘그대로’는 안 된다.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jung0739@hanyang.ac.kr

동아일보, 2012.03.19(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6〉 올바른 교육을 묻다

세상 모든 아이에게… 스스로 배우는 법을… 단계별로 가르쳐야



다산이 오늘날 과도한 선행 학습 분위기를 본다면 분명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다산은 아동이 너무 어리면 글을 읽어도 의미를 모른다면서 아동기의 목표는 공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DB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중앙 사대부에게만 집중된 당시 교

육체계의 문제점과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리고는 여러 저술을 통해 아동교육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지금 한국사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한국 고전문학을 전공했고 다산학 18호(다산학술문화재단 발행)에 논문 ‘다산 정약용의 아동교육론’을 발표한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세 가지 질문을 건네고 다산의 저술을 바탕으로 그 답을 정리했다.》

Q. 가진 자만 배울 수 있나

“교육은 평등하다. 못 가진 자도 배워 높은 지적 수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산의 형인 정약전(丁若銓 · 1758~1816)은 1807년 흑산도에서 ‘사촌 서실(沙村書室)’이란 서당을 열어 아동을 가르치면서 다산에게 격려의 말을 부탁했다. 다산은 이렇게 답했다.

“세계는 다 누에틀이다. 하늘이 백성을 여러 섬에 퍼져 살게 한 것은 누에 치는 아낙이 누에를 여러 누에틀에 퍼놓은 것과 같다. 누에틀의 시각으로 볼 때 큰 섬은 중국이고, 작은 섬은 일본과 유구이며, 아주 작은 섬은 추자도 홍의도 가거도다. 구경하는 이들이 큰 섬을 부러워하고 작은 섬을 비웃지만 누에틀이라는 점은 결국 같다. 박학한 군자가 옛날 전적을 많이 쌓아놓고 법에 따라 가르치면 누구나 경서의 구두를 떼고 성현의 가르침을 파악하며 학업에 열의를 보이고 학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 나아가 성인과 현인도 되며, 문장을 잘할 수 있고, 경세학도 익힐 수 있다. 작은 섬의 백성도 큰 섬의 백성과 차이가 없다.”(‘사촌서실기’)

다산은 이처럼 교육을 누에 치는 것에 비유하면서 작은 곳에서 키운 누에나 큰 곳에서 키운 누에가 차이가 없듯 사람도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배우나 좋은 곳에서 배우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흑산도에서도 잘만 배운다면 중국에서 배운 것과 다르지 않으니 누구나 열심히 배우라는 것이다.

다산의 이런 교육관은 당시로선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의 양반에게만 교육이 집중되던 시기에 지방, 그것도 전라도 섬 지역처럼 극단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서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그 곳 아이들도 공부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Q.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과 방법을 가르쳐라.”

1812년 다산의 제자 정수철(丁修七)은 아들이 공부할 나이가 되자 다산에게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물었다.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식 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지식이 미친다면 한 글자, 한 구절 모두 ‘글귀를 알아차리는 힘’(문심·文心)과 ‘슬기구멍’(혜두·慧竇)으로 안내하는 열쇠가 되지만 지식이 미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다섯 수레의 서적을 쏟아놓고 독파한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같다.”(‘사략평·史略評’) 다산은 “아동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열어주는 데 학습의 목표를 두라”고 조언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암기했다고 하여 학습이 끝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역할은 아동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데 있지 않고 인문학의 기초를 잘 가르쳐 이를 기반으로 아동이 다양한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런 다산의 판단은 당시 아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분석에 바탕을 두었다. 다산은 아동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12세에서 14세까지 3년간이며 그때도 300일 정도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봤다. 아동이 너무 어린면 글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고, 사춘기가 되면 방황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며, 봄가을에는 날씨가 좋아 놀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 하지만 다산은 학습 시간의 부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놀이와 방황을 아동이 크면서 겪는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다산은 아동기 삶의 목표를 공부에만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이 기간에 아동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터득하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Q. 공부에 흥미 갖게 하려면

“새 교육법과 새 교재를 개발하라.”

다산은 “법도를 따라야 지식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가?”(‘교치설·敎釋說’)라며 당시 통용되는 교육법과 교재가 지식을 늘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학생을 혼동에 빠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효과적인 교육법을 찾아내 적용했고 ‘아학편(兒學編)’ ‘소학주관(小學珠串)’ ‘아언각비(雅言覺非)’ 등 교재도 새로 만들었다.

다산은 아동의 학습능력에 따라 적절한 단계별 교육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능력만 있다면 아이가 아무리 어렵도 ‘논어’나 ‘시경’처럼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도 좋다고 봤다. 체계를 세우고 흥미를 유발해 교육한다면 내용이 어려워도 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제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거둬 먹으면 물리고, 제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도 자주 들으면 하품이 나온다. 15권에 달하는 수백 장의 책으로 대역섯해를 공부하면 아무리 의지가 굳은 학생이라도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글을 원수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달 한 책을 읽게 했다면 새로운 맛을 지닌 책으로 바꿔 줘라. 이것이 바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 법(환성성법·喚惺惺法)이다.”(‘교치설’)

다산은 아이가 공부에 꾸준히 흥미를 갖도록 하려면 새로운 교재로 바꾸고 교육법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가 “모든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되 간략하게 하는 것이 옳다”(‘경세유표’)고 말한 것도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ahnhoi@naver.com



안대회 교수

동아일보, 2012.04.02(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7〉 실학사상 詩로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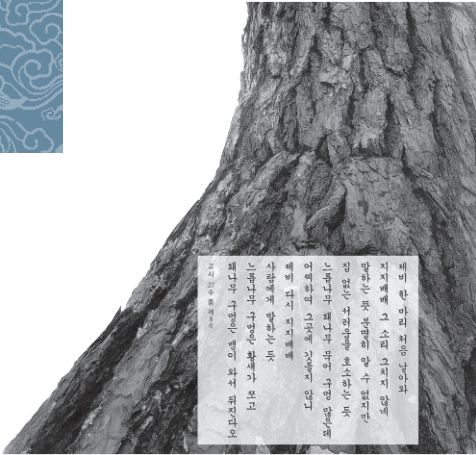
詩 2500수… ‘못다한 愛民’의 슬픔 노래해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시다. 한문학자로서 ‘다산시연구’를 펴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산은 단지 재능이 뛰어난 시인이 아니라 위대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다산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송 교수가 정리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산이라고 하면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그의 대표적 저술과 함께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먼

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2500여 수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詩作)을 전업으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선비들처럼 학문과 정치, 그리고 시작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자신의 학문적 성격이나 정치적 성향을 시에 반영하지 않았고 시와 정치, 시와 학문이 별개였던 반면 다산은 학문과 시를 하나로 통일했다. 즉, 다산의 실학사상이 시로 형상화된 것이다.

재능 있는 시인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시인이 되기 위해선 개인의 정서 속에 집단의 정서가 녹아 있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나아가 개인과 세계를 독립된 별개로 보지 않고 서로 관련돼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로 인식해야만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 느릅나무 왜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 제비 다시 지지배배 / 사람에게 말하는 듯 /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燕子初來時 남남語不休 / 語意雖未明 似訴無家愁 / 榆槐老多穴 何不此淹留 / 燕子復南南 似與人語酬 / 榆穴鶴來啄 槐穴蛇來搜) — ‘고시 27수’ 중 제8수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고립무원의 신세가 돼 경상도 바닷가 장기(長기)로 유배됐을 때 다산이 지은 작품이다. 유배지에서의 어느 봄날 쉬지 않고 지지귀는 제비를 보고 문득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것이다. 제비 같이 연약한 그의 주변에는 황새나 뱀 같은 무리들만 있어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조가 죽기 전 그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모함하는 무리는 다산을 바닷가 마을로 추방했다. 그러나 순전히 개인적 슬픔만은 아니다. 다산은 동물이나 식물을 등장시킨 우화시를 많이 썼는데 자연계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대립을 주로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도 제비와 황새, 제비와 뱀이 대조돼 있다. 황새나 뱀은 자연계의 강자이고 제비는 약자이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제비에 가탁(假託)된 일반 민중의 슬픔과 황새, 뱀에 가탁된 지배층의 횡포를 말하고 있다. 그가 제비를 보고 느낀 슬픔은 다산 개인의 슬픔과 당시 농민 전체의 슬픔이 한 덩어리가 되어 촉발된 것이다. 이것이 다산 시의 위대성이다.

물론 모든 시가 이래야 하는 건 아니다. 순전히 개인 정서를 노래한 시에도 훌륭한 작품이 많다. 평상시에는 잊고 있었던 삶의 본질이나 현상의 뒤에 가려진 은밀한 삶의 비의(秘義)를 시적 언어로 형상화해 독자에게 감동을 주



면 좋은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이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권리는 없다. 특히 다산이 살았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조선은 그의 말처럼 ‘털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였다. 다산은 이 병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게 지식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사회시와 농민시를 대량으로 창작한 건 이런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쓴 우화시는 예술적으로도 훌륭하다. 명확한 주제 파악과 고도의 지적(知的) 통제, 세련된 형상화를 요구하는 우화시를 썼다는 건 다산이 경세가로서의 능력 못지않게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랑이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는 / 입술에 붉은 피 낭자하건만 / 호랑이 위세가 이미 세워졌는지라 / 여우, 토끼 호랑이를 어질다 찬양하네.’ (‘수심에 싸여 12장’ 중 제11장)

이 작품 역시 우화시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 죄 없이 희생당해 강진에 유배된 자신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다.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는 일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호랑이를 여우와 토끼가 어질다고 찬양한다는 발상은 순전히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 시는 다산의 개인적인 처지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다산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열린 자세로 병든 사회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가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언제나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며 안타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뜻을 지닌 후에라야 바야흐로 시(詩)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매달리면 시라고 할 수 없다.’(‘두 아들에게’)

다산은 이처럼 근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공리적으로 시를 정의하고 있다. 물론 2500여 수에 달하는 다산의 시가 모두 이러한 선언적 진술에 따라 쓰인 건 아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적 성격을 띤 것이다. 즉, 시를 쓰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높은 도덕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를 쓰라는 당부로 볼 수 있다. 다산 자신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견지한 채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생활 동안 자신의 개인적 슬픔 속에 농민들의 슬픔을 융해하면서 위대한 농민시편들을 창작했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skjisan@hanmail.net



송재소 교수

동아일보, 2012.04.05(목)

다산이 꿈꾸고 그렸던 세상은… 7일 ‘다산 176주기 묘제’ 봉행 시작

정약용 탄생 250주년, 국제학술회의-기념문화행사 잇따라

올해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012년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행사들

행사	주최·주관	
4월 7일	다산 묘제 및 헌다(獻茶)	다산연구소
16일	기념사업 고유제전	물원공작 총회
7월 7일	다산학술세미나	다산연구소
6월 9일	다산 특별전 학술대회	실학박물관, 한국실학학회, 한국한문학회
16일~7월 15일	탄신기념 다산전	예술의전당 서예관
5일	탄신 250주년 기념식전	다산학술문화재단
5~7일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다산학술문화재단
7월 28일	탄신 25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9일~8월 5일	강진 다산 특별전	강진군
말경	탄신기념 대학생 캠프	다산연구소, 실학박물관
8월 24일	탄신기념 음악회	다산연구소, 다산학술문화재단
25일	제3회 다산다인상	다산연구소, 실학박물관
9월 1일	한국·유럽연합(EU) 국제 심포지엄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
4일	가을음악회(관소리 '다산전')	다산연구소, 다산학술문화재단
7~9일	남양주 다산문화제	남양주시
12일	퇴계학과 근·현대학 학술대회	실학박물관, 한국학진흥원
30일	여유당전서 정본출간기념회	다산학술문화재단
10월 30일~12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국립중앙박물관

행사 일정은 주최 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산 관련 학술 행사로는 다산학술문화재단 주최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주목할 만하다.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학술회의는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 지식의 소통과 변모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학의 쟁점들 △다산과 신민본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 사상 속의 다산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9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2008년 외국인 최초로 다산학술상 대상을 수상한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영국의 한국

학자 앤더스 칼슨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교수, 리쑤핑(李甦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동원 KAIST 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심형호 고려대 교수, 김문식 단국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참여한다.

다산의 저작집을 정리한 ‘정본 여유당전서’ (총 37권)는 연구 10년 만에 결실을 맺어 10월에 출간된다. 2002년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정본 연구에 착수했고 학계 원로 및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 최근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재단은 10월 30일 정본 출간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7일에는 다산연구소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묘역에서 ‘다산 선생 176주기 묘제’를 봉행한다. 이날 도올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는 ‘맹자와 다산’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 밖에 다산이 직접 쓴 글씨와 그림을 전시하는 서예전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열린다.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는 8월 24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9월 4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남양주 다산문화제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남양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한국일보, 2012.04.15

다산의 삶·사상 150분짜리 판소리에 담고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

■ 탄생 250주년 행사


해외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

글씨와 그림 모은 특별전시회도

올해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국립박물관과 실학박물관의 전시회, 음악제, 국제학술대회 등이 잇따른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유산, 다산 정약용의 구상과 기획’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다산학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로,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 지식의 소통과 변모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학의 쟁점들 ◇다산과 신민본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 사상 속의 다산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9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앤더스 칼슨 런던대 동



양·아프리카대학 교수, 리쑤핑(李魁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동원 카이스트 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정본 여유당전서>가 새로 출간된다. <여유당전서>는 다양한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을 정인보 등이 정리해 1936년에 발간한 것으로, 다산학 연구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오탈자가 적지 않고, 다산의 저작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나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한계로 지적됐다.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일반인들도 보기 편하게 가로쓰기로 편집한다. 2002년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정본 연구에 착수해 최근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이밖에 다산이 직접 쓴 글씨와 그림을 전시하는 ‘한국 서예사 특별전-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전’이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또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가 8월 24일 남산골한옥마을과 9월 7일 국립국악원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 음악제에서는 다산의 사상과 삶을 창작 판소리로 집대성한 150분짜리 ‘다산가’와 창작곡 ‘다산이여 다산이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 탄생 300주년, 드뷔시 탄생 150주년,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 사망 50주기와 더불어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올해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의 이념, 가치에 맞는 세계사적 사건이나 위인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관련 기념일’로 선정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8〉 ‘물 먹는’ 시기 견디는 법

승승장구하던 그, 유배의 아픔 이겨낸 건 ‘소명’ 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라!” 정조를 도와 개혁을 추진하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1762~1836)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위기를 맞는다. 노론 벽파와 가까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실학을 추구하던 남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잘나가던 다산은 창졸간에 ‘물을 먹게’ 됐다. 하지만 정약용은 어떻게든 목숨을 건졌고, 18년의 유배 기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 시기가 없었다면 다산의 저서 500여 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희대 사학과 출신으로 ‘베니스의 개성상인’, ‘북별’, ‘구텐베르크의 조선’ 등 역사소설을 집필해온 소설가 오세영 씨가 유배 시절 다산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체로 정리했다. 오씨는 저서 ‘원행’에서 정조의 수원화성 행차를 배경으로 한 조선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립 및 정조 시해 음모를 막으려는 다산의 활약상을 긴박하게 그려낸 바 있다.》



8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다산 정약용을 기리는 다산제에 참여한 지역 학생들이 유배 행렬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을 하며 다산의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위). 가운데는 유배된 다산이 처음 기거했던 사의재(四宜齋), 아래는 다산초당. 동아일보DB



정조 24년(1800) 음력 6월 28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세상을 떠났다. 독살설이 떠돌 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실학을 적극 지원했던 정조의 죽음으로 남인들은 위기를 맞게 됐다. 나이 어린 세자를 대신해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다.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와 가까운 사람이었다.

다산은 관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마현으로 낙향했지만 노론 벽파가 쳐 놓은 덫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신유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치면서 순조 1년(1801) 2월 8일, 다산은 마현에 들이닥친 의금부 관헌들에게 끌려갔다. 지난달 초순에 정순왕후가 사학(邪學) 엄금의 하교를 내렸을 때 눈치 챘어야 했는데 오래 전에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던 탓에 그만 방심을 했던 것이다.

선대왕(정조)의 뜻을 받들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 남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모든 일이 그러하듯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노론 벽파는 천주교를 남인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자신은 천주교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국문장에 끌려나온 다산은 자신은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천주교 신도들을 고발했다. 그들 중에는 셋째 형 정약종도 포함돼 있었다. 정약종은 매형 이승훈과 더불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믿음을 지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학(西學)으로 천주교에 접근했던 다산은 그들과 입장이 같지 않았다.

‘독실한 신자인 셋째 형은 어차피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것이다.’ 다산은 그렇게 판단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정약종을 사석(死石)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아우 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정약종도 동생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다. 이런 날이 올 것을 내다보고 거처를 옮겨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던 정약종은 적극적으로 다산은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밝히고 나섰



다. 상대의 수를 정확히 간파하고 빠져나갈 대책을 마련한 동생과 생사를 초월한 형제애로 다산을 도운 형. 뒷을 놓고 정약용을 옹아매려던 노론 벽파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산은 사지를 빠져나왔고 먼 남쪽 땅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경북 장기(포항)를 거쳐 전남 강진에 당도한 다산은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절감했다.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다. ‘이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잊혀진다는 것은 서럽고 두려운 일이다. 다산처럼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람은 새벽에 정신이 제일 맑다.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만큼 두려움도 가장 심하게 느낀다. 잔월이 영창을 통해 은은한 빛을 뿌릴 때면 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산은 가족들을 강진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부지런히 친지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스산한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면 외로움은 극에 달했고 이대로 잊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떻게 하면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생각을 낙천적으로 하고 바쁘게 살아야 했다. 이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신유사옥에 함께 연루되어 흑산도로 유배된 둘째 형 정약전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외딴섬으로 유배된 정약전은 어민들과 어울려 물고기 죽보(‘자산어보’)도 만들고, 학동들을 모아 서재를 열며 적극적으로 외딴섬에 적응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여인도 맞았고 아들도 얻었다. 그런 둘째 형을 보며 다산은 용기를 얻었고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게 됐다.

같은 처지의 형제지만 답을 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약전이 적극적으로 현지에 동화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데 비해 다산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실학과 민초의 삶을 접목해 앞으로 조선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소명(召命)으로 다산은 붓을 들었다. 그것이 선대왕의 뜻을 받들고 셋째 형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를 비롯해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유배시기에 완성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온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위기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본질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다산이 이른바 ‘물먹는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겼냐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개혁가들은 대부분 낙천주의자들이다. 박영효는 훗날 갑신정변의 동지였던 김옥균을 ‘형편없는 허풍쟁이’라 평했다.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의 별명은 ‘대포’였다. 그런 이들은 위기에 잘 적응한다. 하지만 다산은 선천적인 낙천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소명을 정확히 헤아리고 정진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냈다. 오늘날 다산이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추앙을 받는 건 18년의 유배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체됐던 조선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고 개인적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던 다산이 새삼 그리워진다.

오세영 소설가 paulino530@hanmail.net



소설가 오세영

다산의 실학정신, 첨단시대에도 빛난다

내년 탄신 250돌... 기념사업회 결성
‘여유당전서’ 정본 발간 등 각종 행사

내년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개혁에 고심했던 그를 기리기 위해 실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원로 학자들이 최근 ‘다산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회’(위원장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

위원회에는 고문으로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진 나주 정씨 월헌공파 회장,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 위원으로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실학학회장, 최광식 문화재청장 등이 활동하며 총 50명이다.

위원회는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실학사상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7월 초에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8월), 실학박물관 특별전(4, 5월),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유물전(6, 7월),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7월)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약용의 대표적 저술인 ‘여유당전서’를 내년에 ‘여유당전서 정본’으로 다시 발간하고 디지털로 복원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여유당전서는 1934~1938년 정인보 등에 의해 발간된 적이 있으나 당시 문집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문



다산 정약용 초상
동아일보DB

집 체제를 따르지 않았고 빠진 글도 제법 있어 이번에 정보 발간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다. 이우성 위원장은 “다산 탄신 250주년에 여유당전서 정본이 발간되는 것의 의의가 적지 않다”며 “정보 발간으로 정약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동아일보, 2012.04.30(월)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9〉

‘평생 공부’ 몸소 보여준 아버지

유배지서 편지 교육… “너희들이 독서하는 건, 내 목숨 살리는 일”



전남 강진에 유배간 지 10년째 되던 해인 1810년 다산이 부인 홍씨에게서 온 치맛자락에 쓴 편지인 ‘하피첩’. 두 아들에게는 사대부로서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시집가는 딸에게는 집안의 화락을, 막내딸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하피첩은 9월 9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특별전 ‘다산, 한강의 삶과 꿈’에서 볼 수 있다. 실학박물관 제공

《1801년 신유옥사(辛酉獄事)로 유배생활을 시작할 당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1762~1836)은 마흔이었다. 그에게는 열아홉, 열여섯의 두 아들이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고3과 중3의 나이. 한창 공부하고 인성을 다듬을 때였다. 하지만 다산은 머나먼 유배지에서 오직 편지를 통해서만 두 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요즘의 기러기 아빠들보다 사정이 더욱 딱했다. 그랬기에 그의 교육은 엄격했지만 간절했다.》

다산의 편지를 편역한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를 펴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아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 26통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교육법을 살펴봤다. 본문의 인용문은 다산이 쓴 편지의 내용이다.

“떠나올 때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몹시 안됐더라. 늘 잊지 말고 음식 대접과 약 시중을 잘해드려라.”

다산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첫 편지는 1801년 6월 17일(음력) 첫 귀양지인 경북 포항 근처의 장기에서 쓴 글이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전한 다산의 첫 가르침은 ‘효’였다. 유학자인 다산의 가르침은 항상 ‘효제(孝悌)’를 기반으로 했다.


“학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효와 제로 근본을 삼고, 예(禮)와 악(樂)으로 수식하며, 정치와 형벌로써 도움을 주고 병법(兵法)이나 농학(農學)으로써 그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폐족(廢族)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를 하려면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오직 효제가 그것이다. 반드시 먼저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다산은 효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를 강조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함을 근본으로 한 후에야 독서를 통해 학문의 길도 열린다는 것. 실제로 다산의 수많은 편지에서 독서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피첩’에서 다산이 두 아들에게 남긴 교훈인 경직(敬直), 의방(義方)은 ‘(군자는) 안으로는 마음을 끈게 하고 밖으로는 불의를 좌시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난다’는 뜻으로 선비들이 추구해야 할 공부의 목표를 담고 있다(위). 다산이 강진에서의 18년 유배생활 중 10년을 머문 다산초당. 실학박물관, 동아DB



“내가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오직 둘째 아이가 열심히 독서하는 일뿐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유학자이면서 실학자인 다산은 두 아들이 사서오경만을 읽고 배우는 학자나 선비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정치학 형법학 병법 농학 부역(賦役) 재정학 등으로 학문의 범위를 넓히기를 요구했다. 실학에 마음을 기울이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독서를 권했으며 의학에 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세상의 일이나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버려서는 학자도 아니요, 선비도 아니며, 독서군자가 아니다. 나라를 근심하고 세상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성리학과 실학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실학적으로 사고하고 실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쳤다. 성리학자 주자(朱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모두 이(理)로 해석하여 이학(理學)이라는 관념의 세계로 유학의 체계를 집대성했다. 다산은 그러한 주자의 이(理)의 세계를 행(行)의 세계로 대치해 실학의 이론을 세웠다. 즉, 인의예지란 일을 행동으로 실천한 후에야 그 이름이 성립된다는 것. “이(理)를 말하는 주자학자들은 인의예지를 각각 날개로 떼어놓고 이것들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만 측은(惻隱)이나 수오(羞惡)의 근본일 뿐이지, 이것을 인의예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오직 편지를 통해서만 두 아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던 다산의 편지에는 눈물겹고 애가 타는 내용이 담겨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술한 저서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

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흙으로 빛은 사람처럼 될 뿐 아니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런 병은 고칠 약도 없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두 아들에게 책 읽고 공부하기를 권장했던 아버지 다산은 유배 기간에 단 하루, 단 하룻밤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학문 연구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아버지였다. 이를 아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자녀 교육의 본질은 부모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인 정학연(丁學淵)과 정학유(丁學游·‘농가월령가’ 저자)는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다. 추사 김정희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이재 권돈인이나 정조의 사위 해거재 홍현주와 수시로 시와 학문을 논했다. 다산의 제자인 초의대사나 황상과도 절친하게 지내면서 당대의 수준 높은 지식인으로 성장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간절한 편지와 가르침에 감복했던 두 아들이 효제의 유교원리를 제대로 습득해 자식의 도리와 형제의 직분을 다했다는 것. 다음은 학유가 죽었을 때 황상이 보낸 위로의 글에 형인 학연이 답으로 쓴 편지의 첫 부분이다.

“내 아우 운포(정학유)가 죽었소. 내가 무슨 마음 어떤 손 어느 겨를에 그대의 편지를 받고, 그대의 편지를 보며, 그대의 편지에 답장을 하겠소.” 정말로 이들은 ‘형제지기’였고 ‘형제동학’이었다. 아버지 다산은 두 아들의 훌륭한 스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해준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 단국대 석좌교수 sm537@edasan.org



박석무 이사장



경향신문, 2012.05.01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애민·공동체 삶 중시한
정약용, 인간성 회복 보편적 가치 일깨워”

(상) 왜 다산인가 - 실학박물관 학예사 방담

경향신문은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아 3차례에 걸쳐 다산의 자취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번째는 실학박물관 학예사들이 말하는 다산이다. 다산의 전체상이 무엇인지, 오늘날 왜 다산을 조명해야하는지를 젊은 연구자들로부터 들어봤다. 이어 다산을 연구해 온 원로학자와 소장학자의 대답을 통해 다산의 학문과 예술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실학자 이익,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홍대용 중 누구를 멘토로 삼고 싶어요?”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 실학박물관을 찾은 29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약용’을 꼽았다. “안산에서 온 학생들이라 안산이 낳은 유명한 실학자가 성호 이익이라고 넌지시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국민들이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약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실학박물관 정성희 학예사의 말이다.

“다산은 ‘국민실학자’입니다.” 김성환 학예실장은 “초·중·고 교과서의 실학에 대한 서술 중 70%가 다산 관련 내용”이라며 “실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50명쯤 되는데 나머지는 다산을 받쳐주고 있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왜 다산일까.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머물던 생가 옆에 세워진 실학박물관을 찾았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바라다보이는 언덕에는 다산의 묘소도 자리잡고 있다. 마침 지난 달 27일부터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 한강의 삶과 꿈’이라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곳의 학예사들에게 다산을 물었다. 김성환 학예실장을 비롯해 양상훈, 정성희, 조준호, 김형섭, 이소희 학예사가 함께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의 다산 생가에서 실학박물관 학예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섭, 김성환, 양상훈, 조준호, 정성희, 이소희씨. 생가에 걸린 '여유당(與休堂)'은 <노자>에서 따온 것으로 난세를 살아간 다산의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남양주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1935년 동아일보 일러스트부터 2009년 강진군에서 그린 안경 쓴 초상화까지 불과 80년도 안된 사이에 다산의 모습이 대여섯 차례나 각기 다르게 그려졌어요. 시기마다 다산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기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10~20년 후 다산의 모습이 다시 그려진다면 그 당대의 이슈를 담아내는 또 다른 모습일 거라 생각해요.” (김성환)

여러 장의 초상화가 상징하듯 다산은 누구나 끌어당겨 쓰기 좋은 매력적인 학자다. 사람들은 다산에게서 국가경영과 지도자의 마음가짐을, 경제와 통상정책을, 지식의 습득과 활용 방법을, 자녀들의 교육방법을, 심지어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통해 극한의 곤경을 참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실학자 중에서는 현실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속세를 떠나 학문의 세계로 가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다산은 세상에 계속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날 사회의 변화나 개혁을 바라는 분들에게 어필했



다산 정약용의 초상(김효섭 그림)

을 겁니다. 특히 다산, 나아가 정조의 꿈이 실현됐다면 근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

사회 개혁은 다산의 ‘정제된 이미지’다. 하지만 다산의 면모는 다양하다. 방대한 저작을 남긴 학자·사상가였으며 현실정치에 참여한 정치가·관리이기도 했다. 또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애뜻한 사랑을 전한 생활인·자연인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다산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김형섭 학예사는 “다산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그 결과물을 내놓았는지를 이해해야만 근본 정신이나 더 큰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고 말했다.

“학자들은 자기 논리를 위해, 일반인들은 위인상을 희구하며 다산을 좇습니다. 진보나 보수를 통틀어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서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어요. 그건 다산에게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소박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 같은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다산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체현(體現)하려 했지요. 그래서 당당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글을 읽으라고 권할 수 있었지요.”

후손들에게 ‘고향을 버리지 말라’고 했던 다산에게는 “가족과 고향이 확대된 것이 백성이요, 곧 나라”(김성환)였을 것이다. “민생 살피기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족처럼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다산의 생각이었습니다. 철저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고 민생을 생각했다는 점이 기존 유학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민생을 위한 하나의 실행 수단이었죠.”




다산은 시장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헐벗은 남매를 보고 눈물짓는 따뜻한 가슴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 백성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한 민본주의 정치가이자 공동소유·생산·분배의 여전제를 생각한 정책가이기도 했다. 양상훈 학예사는 “암행어사, 지방행정관으로서 다산이 가장 뛰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똑같은 목민관이어도 민(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진 점, 즉 백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꿨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다산이 강조했다라고 알려진 민생이나 부국강병은 산업사회의 근대담론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근대화에 한창 열을 올리던 시기에 근대적 이미지를 다산에게서 뽑아내려 했던 것이죠. 현대나 미래에 중요해질 가치가 인간성과 자연의 회복이라면 오히려 다산 사상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어떤 메시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에서 더 찾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김형섭 학예사는 다산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목했다. “가르치고 외우라기보다 감화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시대의 고뇌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헤쳐 나간” 사제시간이야말로 다산이 추구한 공동체 정신의 밑바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술활동을 사제 공동으로 한 것은 물론 자기의 전답을 밀천으로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이 함께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하도록 했다.

다산은 한강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알고 경세를 꿈꿨다. 다산에게 한강은 백성의 삶을 보듬는 생명줄이자 민중의 고통과 염원을 품고 가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다. 조준호 학예사는 “물과 가깝다는 것이 다산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한강이 다산의 삶과 사상의 기저에 있음을 지적했다.

“다산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시름을 달랬고 고향에 돌



아와서도 한강을 보고 살았습니다. 강이 바다다보이는 곳을 못자리로 지정했던 걸 보면 죽어서도 물을 바라보고자 했어요. 스스로의 호를 ‘열수’(冽水·한강)라고 쓰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다산 묘소를 자주 찾는다는 김형섭 학예사는 “이 시대, 다산 선생이 계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격려와 충고는 물론 삶의 자세까지 알려줄 것 같다”고 말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2.05.08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중) 다산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 - 임형택·백민정 교수 대담

- 임형택 “1대99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다산을 다시 불러내”
- 백민정 “개인 수양과 국가 통치 요체를 제시한 정치철학자”

1899년 다산 정약용이 60여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다. 다음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던 다산이 그해 황성신문 논설(4월 17, 18일자)에서 ‘아국(我國)의 경제학대선생(經濟學大先生)’이란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위암 장지연은 이 글을 통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꺼져가는 국운을 다산의 학문과 사상이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다산과 실학에 대한 열띤 관심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말 애국계몽기에도, 1930년대 조선학운동 때도 그랬듯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대에 다산과 실학 사상에

서 실마리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69)와 백민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40)가 마주앉아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산의 학문과 사상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 짚어봤다.

소장학자인 백 교수가 주로 다산 사상의 모순점이나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원로학자인 임 교수는 다산 사상이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담은 지난 7일 서울 익선동 임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연구실에는 실학의 핵심 사상인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글이 높이 걸려 있었다.


백민정 = 우리 사회에서 다산과 실학 붐이 일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임형택 = 최근의 다산 열풍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져 의미가 큼니다. 곧 오늘의 시대가 다산을 호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1% 대 99%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구 주도의 근대에 대한 문명사적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다고 새 길이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찾고 개척해야 합니다. 이 시대정신이 다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백민정 = 다산을 생각하면 우선 실학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학이란 용어는 허학(虛學)에 대비되는 보통명사이며, 정도전 등 초기 주자학



임형택 교수(왼쪽)와 백민정 교수가 7월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대담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문원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자들도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의 통일,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병진을 목표로 하는, 즉 실학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학술경향을 혼동의 우려가 있는 ‘실학’이라는 일반명사 외에 다른 용어로 지칭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형택 = 실학이란 용어 문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며,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아시아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원래 실학이란 17~19세기에 있었던 신학풍을 지칭하며,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에도 유사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를 유독 한국에서 실학이란 개념을 적용해서 파악했는데 한국의 실학 개념이 중국이나 일본에 받아들여지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고 굳이 실학이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오게 된 것이죠. 동아시아에 ‘역사적 공통성’으로 존재했던 신학풍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논하려면 꼭 실학이라는 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달리 적절한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대 고증학이나 일본의 고학은 실학에 비해 3국의 신학풍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동아시아 실학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3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학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민정 = 20세기 이후 한국의 주류 사상은 근대 서양 학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외래 사상과의 부침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학문과 사상의 정립을 모색한 다산의 노력이 더욱 경이롭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학(西學)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천주교와 서양과학의 정보가 구시대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유학을 변혁하는 지적 추진력을 제공했는지 몰라도 다산 사유의 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임형택 = 서학이 실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



습니다. 서학 내지 서세와 실학의 관련 양상은 먼저 큰 눈으로 봐야 합니다. 16세기부터 전 지구적으로 진행돼 온 서세동점, 즉 서구세력의 진출이 다산의 시대에는 눈앞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력적인 위협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상·종교의 침투가 심각했습니다. 서학은 이미 폭넓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에 다산은 어떻게 학문적·사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이 문제가 바로 다산의 최대 고심처이며 평생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자학으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유교의 사상전통을 포기하면 서학으로 개종하는 꼴이 되지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경학이죠. 경전을 새롭게 해석해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산은 서학서도 깊이 읽었고, 좋은 점은 취하려고 했습니다.

백민정 = 다산이 강조한 상제(上帝·고대유학의 인격신으로 우주 만물의 근원인 절대적 존재)는 서학의 천주(하느님) 개념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간관이나 실천적 공부법에도 인격적 의미의 상제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제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자세를 지니면서 신독(慎獨) 공부를 할 것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다산이 주자학의 태극(太極)과 이(理) 개념의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상제를 내세운 것이 실천적 공부의 관점에서 볼 때 유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형택 = 다산의 상제관은 이제 하나의 사유 방법론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래 주자학은 천리와 도덕을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연과 도덕이 일체화돼 인간사회의 논리로 인간 밖의 자연의 논리를 포섭한 것이죠. 그런데 다산은 유학 본연의 천(天) 개념을 부활시켜 하늘을 도덕적 감시자로 상정함으로써, 자연 질서는 그것과 분리해 자연 그대



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오히려 과학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셈이죠.

백민정 = 다산은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 모순되는 말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정치가들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정치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제후와 천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가는 가장 아래 백성들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대된 존재에 불과하고 했습니다. 이른바 ‘하이상(下而上)’에 따른 상향식 여론 조성이며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논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잘못된 정치가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방벌(放伐)의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 백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어느 때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산은 1812년 홍경래의 난을 ‘당장 달려가 토벌하고 싶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다산의 언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산의 민(民)에 대한 전반적 관점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형택 = 다산의 인간학이나 정치학에는 민주적인 사상의 싹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시대의 민중봉기를 부정적으로 성토했느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민을 정치의 주체로 기획하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제도는 어떤 참고할 만한 모델 없이 한 개인의,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산의 시대에서 민주공화제의 국가는 엄밀히 말하면 전 지구상에서 미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산은 물론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질 수도 없었고요. 따라서 민을 주체로 하는 다산의 정치 이상은 현실에 절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산은 민주주의 가능성을 정말 예리하게 포착했고 민이 나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전제군주제가 되면서 ‘상이하(上而下)’ 방식이 당연



하게 받아들여지고 정당한 줄로만 생각하지만 결국 큰 역사에서 보면 매미가 여름 한철밖에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민심이 표출되는 것은 찬동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사회제도를 크게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왕조체제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자, 전복시키자 이런 말에 동의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과 얼추 비슷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아닌가요. 하물며 다산 시대에 왜 이걸 안 했냐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백민정 = 조선시대 신분제와 관련된 다산의 입장도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다산은 과거제 응시를 모든 신분에 개방하고 누구나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위계질서 혹은 신분간의 엄격한 차이를 매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태학에서 귀족 자체와 평민을 함께 뒤섞어 가르치는 당시 교육 행태를 비판하면서 왕실 교육기관이 이유도 없이 서민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그 자취를 잃었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임형택 = 단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층민이 부를 이뤘다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양반에 편입되면서 저 개인은 상승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덧붙여 정말 우리가 중시해야 할 부분은 다산의 인간관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 자신의 판단으로 선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말했지요. 다산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이런 인간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관심을 뒀습니다. 신분제 해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20세기 와야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왕조체제



가 존속하는 한 후계자를 포함한 왕실 자제들의 특수 교육기구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요.

백민정 = 다산의 경제학을 평가할 때 ‘손부익빈(損富益貧)’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평등의 이념을 경제 민주화의 고전적 단초로 해석하곤 합니다. 다산의 여전제(閭田制)는 토지공개념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아래 모든 경지의 공동소유 및 공동경작 그리고 가족노동량에 따른 공평한 생산물의 분배를 주장한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산은 <경제유표>에서 사적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국가 공전을 확장하고 개인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국유화해 가는 정전론을 주장합니다. 게다가 다산의 치산치전(治産治田)은 백성 모두의 경제 상황을 평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 증대와 조세 관리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입형택 = 다산이 구상한 여전제의 목적이 국부 증대, 세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겠어요. 역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느냐에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산이 초기의 여전제를 왜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고 정전제로 생각을 바꾸었는지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생산력의 저하였습니다. 결국은 공동소유·공동경작에 의한 산술적인 평등의 분배방식을 가지고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힘들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물론 다산이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바꿨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런 산술적인 평등의 방식을 가지고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안이고,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민정 = 조선후기 실학을 오늘의 의미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



청도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다산학 열풍이 한때의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임형택 = 다산의 학문은 그야말로 공리공론이 아니고 민생에 유익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실학이 그 당대의 현실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책임을 다산에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실제 다산의 민생을 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상과 기획은 모두 저술 속에 담겨 있는데, 저술이 다산 집 책장에 사장돼 있었고 그래서 현실에 이바지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었습니다. 정말 통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금년에 이는 다산 열풍이 헛바람이 될 우려가 꼭 없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이 다산을 호명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다산을 호명한 그 시대정신이 뭐냐, 그것부터 정말 투철하고 맹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실학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산학의 창조적 부활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문학의 총체성 회복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백민정 = 선생님께서는 21세기 실학이 20세기의 재판이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사구시 역시 21세기 현실을 반영하는 토대 위에서 새롭게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 일제시대와 근대화 과정에서 맥이 끊긴 척박한 한문학 풍토에서 우리 고전 발굴·번역과 함께 그 의미를 찾는 연구에 매진해 왔다. 실학자들의 저서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도 힘썼으며, 고전문학 분야에서 다산학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는 다산학술대상을 받았다. 저서로 <문명의식과 실학> <실사구시의 한국학> <우리 고전을 찾아서> 등이 있다.

▲ **백민정** 성균관대 HK연구교수 = 연세대 철학과에서 정약용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을 발전시킨 저서 <정약용의 철학: 주희와 마테오리치를 넘어 새로운 체계로>(2007)는 다산을 19세기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다양한 철학적 경향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철학의 집대성자’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는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2.05.08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 기고 - 시대를 앞서간 학문과
사상, 다산을 잇는 사유 실험 계속돼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그만큼 방대한 분량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남긴 학자도 드물다. 호학군주였던 정조와의 만남, 12년간 지속된 패기만만한 젊은 관료로서의 삶,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찾아온 인생의 비극적 반전, 18년 넘게 이어진 장기간의 유배 생활, 수백권에 이르는 장대한 학문적 결산 <여유당전서> 작업의 진행. 이것은 철저한 고독과 고뇌로 점철된 개인의 비극적 삶이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스스로 지은 묘지명에서 학문 인생을 결산하며 이렇게 총평한다. “육경(六經)과 사서(四書)에 대한 연구로 개인수양을 삼고 일표이서(一表二書)로 천하국가를 위하고자 했으니 본말(本末)을 모두 갖추었다.”(‘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사대부, 즉 학자관료로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학문과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개인수양의 문제를 다룬 경학(經學) 및 국가의 정치·경제 문제를 다룬 경세학(經世學)의 통일을 지향했는데, 다




산이 말한 ‘본말을 모두 갖추었다’란 바로 이것을 일컫는다.

육경사서에 대한 다산의 철학적 주석들은 주자학을 비판하고 넘어서기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의 보고다.

그는 태극(太極)과 이(理) 개념의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공박하기 위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한다.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된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우리 마음속의 타고난 이치(理)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륜(人倫) 관계에서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간 마음의 자유의지를 내세워 누구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선(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초년기 서학(西學)의 강렬한 영향을 받았던 다산은, 이 같은 개인의 자기수양을 위해 고대유학의 인격적 상제관(上帝觀)을 새롭게 복권시켰고, 상제에 대한 공경 및 신독(慎獨·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함) 공부를 인간의 윤리적 실천을 돕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일표이서로 불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는 다산의 경세학을 대표하는 주저이다.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新我舊邦) 다산이 내놓은 <경세유표>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넘어 장구한 시간 동안 존속 가능한 ‘신국가 건설’ 기획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경세유표>가 미래의 이상적 국가시스템을 밝힌 것이라면, <목민심서> <흠흠신서>는 당시 조선의 법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례(周禮)>라는 고대유학 경전을 재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산의 <경세유표>는 표면상 복고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특정한 사대부의 발호 그리고 군왕의 정치전형을 막기 위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고안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실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다산 나름의 주요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잘 반영한 것이다.



다산의 <목민심서> 역시 19세기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수동적 피지배층에 머물지 않았던 민(民)의 변화된 의식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와 법을 논한 다산의 이 3권의 책은 명말청초 중국 지식인(황종희·고염무) 그리고 동시대 일본 고학파 지식인(오규 소라이)의 사회개혁 논리와 비교할 때, 그 고유하고 독창적인 정치철학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산은 20세기 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조선을 살릴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인물로 호명된 이후 조선학 운동을 통해 대표적 실학자로 주목받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주요한 사상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산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그의 학문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다산이 이룩한 경학과 경제학의 통일 역시 시대에 부응한 다산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다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긴박한 시대적 물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다산을 잇는 또 다른 사유 실험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백민정 | 성균관대 HK연구교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
〈10·끝〉1930년대, 실학사상 재조명 나선 동아일보

“식민지 해방시킬 유일한 정법가” 역사속의 다산을 다시 깨우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근세조선의 유일한 정법가(政法家)이다. 아니 상하 오백 년에 다시 그 쌍(雙)이 적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선생 일인에 대한 고구(考究)는 곧 조선사 연구요, 조선근세사상의 연구요, 조선심혼(心魂)의 명예 내지 전조선성쇠존멸에 대한 연구이다.”(‘유일한 정법가 정다산 선생 서론(敍論)’·정인보·동아일보 1934년 9월 10일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은 조선 르네상스의 끝자락에 태어나 조선이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역사 속에서 잠자던 다산을 다시 깨운 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었다. 1930년대 지식인들은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동인을 민족 내부에서 찾았다. 민족주의적 한국학인 조선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이 그 중심에 있었다. 다산에

동아일보사가 게재한 다산 정약용 관련 주요 기사

매체	제목	원수	게재일자	필자
	이상호와 운우록	3회	1929년 12월 22~25일	정인보
	유일한 정법가 정다산 선생 서론	6회	1934년 9월 10~15일	정인보
	정다산의 사상	1회	1935년 7월 16일	백남운
	다산 선생의 일생	1회	1935년 7월 16일	정인보
동아일보	이조 유학사상의 정다산과 그 위치	1회	1935년 7월 16일	한상운
	다산 선생 저술연표	1회	1935년 7월 16일	필자 미상
	여유당전서를 독함	65회	1938년 12월 9일~1939년 6월 4일	최익한
	다산 선생과 현대와의 관계	1회	1938년 12월 9일	안호상
	종우술과 정다산 선생	4회	1940년 2월 29일	장해성
신문아	정다산 선생과 그 생애의 회고	1회	1934년 10월 1일	안재홍



1934년 9월, 본보에 6회에 걸쳐 연재된 정인보의 ‘유일한 정법가 정다산 선생 서론’(오른쪽 지면)은 신문을 통해 실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알린 호시이며, 1938년 12월부터 본보에 65회에 걸쳐 연재된 최익한의 ‘여유당전서를 독함’(왼쪽 지면)은 다산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수작으로 인정받는다. 1930년대 지식인들이 다산학 및 실학 연구를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신문과 잡지였다. 그중에서도 동아일보는 가장 앞서갔던 매체로 꼽힌다. 동아일보DB



대한 연구는 서거 100년이 되는 해인 1935년 전후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이 같은 연구를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잡지였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정인보는 1934년 9월 10일에서 15일까지 6회에 걸쳐 ‘유일한 정법가 정다산 선생 서론’을 실었다. 최초의 실학 연구물로 꼽히는 이 글에서 정인보는 다산의 사상이 실학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다산을 조선의 탁월한 위인이자 새로운 정법과 문화 건설의 실제적 여망을 담은 인물로, 그리고 조선학 운동의 정신적 기폭제로 인식했다. 같은 해 안재홍은 동아일보 자매지인 신동아 10월호에 ‘정다산 선생과 그 생애의 회고’를 기고하면서, 다산을 ‘조선의 대선각(大先覺)이요 대선구자(大先驅者), 문(文)의 제일인자’로 평가했다.

1935년 동아일보는 7월 16일 3면 전면을 할애해 정다산서세백년기념(丁茶山逝世百年記念·서세는 별세의 높임말)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정인보의 ‘다산 선생의 일생’, 백남운의 ‘정다산의 사상’, 현상윤의 ‘이조 유학 사상의 정다산과 그 위치’, ‘다산 선생 저술연표’ 등을 실었다. 또 16일 1면 사설을 통해 다산의 유덕(遺德)과 업적을 기려 찬양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해 7월 16일자에 ‘고증학상으로 본 정다산’ ‘다산선생연보’ 등을 실었고, 매일신보는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을 게재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출판사 신조선사는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다산의 문집인 ‘여유당전서’ 영인본 간행 작업을 진행했다. 다산학을 비롯해 실학 관련 기사를 주로 쓴 정인보 최익한 안재홍 등이 여유당전서 출판에 참여했다. 동아일보 등 신문사들은 간행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기

도 했다.

동아일보는 1938년 여유당전서 76권 400부가 5년여의 작업 끝에 완간되자 10월 28일자에 관련 소식을 크게 다뤘다. 이후 최익한은 1938년 12월 9일부터 1939년 6월 4일까지 무려 65회에 걸쳐 ‘여유당전서를 독(讀)함’을 연재했다. 박홍식 대구한의대 외국어학부 교수는 “여유당전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글은 분량과 내용에 있어 다산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수작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다산학 17호에 ‘일제강점기 정다산 재발견의 의미, 신문 잡지의 논의를 통한 시론’을 발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영남대 한국근대사상연구단장)는 “일제강점기에 다산 서거 100년을 전후해 일어난 조선학 운동에서 ‘정다산’은 우리나라 위인의 표상이자 아이콘이었다”며 “당시 신문과 잡지는 지식인들이 다산학 및 실학 연구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갔던 매체가 바로 동아일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경향신문, 2012.05.15

[탄생 250주년, 다산을 말한다](하) 예술로 본 인간 다산

김영호 교수 · 이동국 큐레이터 대담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 경학(철학)과 경세학(사회과학)에 치우쳐왔다. 다산의 대표작으로는 통치 요체를 담은 <목민심서>와 사회경제 개혁방안을 서술한 <경세유표> 및 <흙흙신서>를 꼽아왔다. 그러나 다산은 사

상과 학술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린 사대부 문인 작가였다. 다산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살폈던 문예의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지난주 ‘다산의 학술과 사상’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예술로 본 인간 다산’을 주제로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담에는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와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가 참여했다.

- ▲ 김영호 “서예·건축에도 뛰어난 다산, 예술적 성취 조명해야”
- ▲ 이동국 “현실 비판한 문예와 학문,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

김영호 = 최근 다산 연구의 경향을 보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퍼즐은 맞추면 전체가 나오지만 다산의 경우에는 부분에만 맞춰서는 전체가 안 나옵니다.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의 예술을 출발점으로 다산의 전체상을 보자는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왼쪽)와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가 14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다산 정약용의 예술활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이동국 = 핵심이 전체상이라고 할 때 시대별로 다산의 인물상을 어떻게 그려왔는지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다산의 인물상이 1992년 김호석 화백이 그린 측면상 등을 포함해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근현대의 초상들이 모두 달라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영호 = 공통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보



지 않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다산상은 한말 역사교과서에 실린 다산상과 비슷해요. 다산은 자신이 외가 쪽을 닮았고 특히 공제 윤두서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한말의 역사교과서에 나온 다산의 얼굴은 공제 윤두서의 초상과 또 다산을 실제 본 적이 있는 분이 다산과 많이 닮았다고 지목한 사람의 얼굴을 참고해 그린 것입니다. 다산이 1836년에 돌아가셨으니 구한말에 연세 많은 분들 중에는 다산을 직접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근거를 가진 건 그거밖에 없고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30년대 몇 개의 초상이 그려졌고 지금 남산의 다산 동상도 그걸 참고했죠. 근데 요 근래 나온 두 개는 틀림없이 그 초상을 참고했을 텐데 저처럼 다산을 수십년 따라다니며 공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다산의 얼굴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다산의 여러 초상에 서로 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산의 육신적 얼굴이 아니라 다산을 필요로 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근대화를 부르짖던 1960~1970년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산의 초상을 이와 연관짓는 것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국 = 각 시대가 필요로 했던 다산을 이 면 저 면 클로즈업한 걸로 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가령 저는 한말의 다산 초상은 우리 내부에 있던 개화의 얼굴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학의 핵심이면서 조선 정신의 핵심, 즉 당시 사설처럼 ‘조선 정신의 태양’으로서 다산을 불러오는 것이 민족적 요구였죠. 1960년대, 1970년대의 다산은 근대가 반드시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내재적으로도 형성되고 있었다는 근대화의 내면적 도달점으로서 다산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근대화라는 과제와 관심이 사라지고 다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국 = 전 주로 글씨를 보는 사람이니까 ‘글씨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골상학과 서체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산 글씨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다산상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연관 관계가 아주 뚜렷한 거 같습니다.

김영호 = 근래에 여러 다산 자료들이 발굴됐고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지만 전체 연구는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20년 동안 이뤄진 업적 가운데 다산과 마테오리치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연장해 다산과 소크라테스·플라톤과 같은 희랍철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다산을 괴테나 불교, 양명학, 청대 고증학, 일본 유학자들과 연관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척돼 국제적인 상호관계 내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상당히 축적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가 각각의 연구에만 매몰되면서 오히려 전체상을 구성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동국 =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다산은 이런 인물만을 다루거나 서양 학문의 어떤 각론이나 장르별 접근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다산의 생애를 볼 때도 다산의 강진 유배생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가기 전 약 40년간은 고향과 서울에서 살았고 유배가 끝나고 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십 몇 년을 한강 열수(洑水)에서 살았는데 생애 시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 시기가 500여책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유례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되새김질되고 농축되고 사상적으로 새로운 근원을 찾아가는 시기가 소위 말해서 해배(解配) 이후 열수 시기라고 할 때 다산의 시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산의 전체상을 그리려면 이쪽에도 합당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호 = 다산 관련 박물관 몇 곳을 가보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에게 다산이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관심을 안 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했다는 식으




로 ‘판에 박힌’ 다산 교육을 하는 것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면서 진실로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상적 영혼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일이 절실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동국 = 다산을 다룬 논문은 약 2500편 되지만 지금 다산의 실체가 안 잡히는 것은 정말 비다산적 접근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원전을 놓고 옳고 그르고를 따져가면서 하지 않고 부풀려진 걸 계속 부풀려가니까 다산은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다산의 전체상을 가능한 데까지 고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호 =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산이 1836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다산 붐이 몇 차례 있었는데 아직 종합 다산 전시회를 한번도 못했다는 건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산의 1차 자료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역량, 또 모아서 종합 전시회를 해서 그 붐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250주년에도 제각기 하는 양상입니다. 전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를 모아 통합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던 자료도 나오게 됩니다.

이동국 = 다산이 줄곧 안과 밖을 한데 꿰었다고 하는데 문예를 통해 사상을 보고 사상을 통해 문예를 보는 접근이 다산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김영호 = 다산의 매조도와 산수화가 그간 서너 점 띄엄띄엄 나오다가 이번 서예박물관 전시에서 10점 이상 공개되면서 다산의 그림세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죠. 전 다산의 글씨가 참 좋다고 봅니다. 특유의 활달한 필체로 서예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합니다. 다산의 제자들은 모두 그 서체를 쓰죠. 다산의 예술적 재능은 시서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산 초당의 사경을 중심으로 하는 다산의 정원은 한국 정원사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가 일러



준 건축가로서의 아이디어가 황상이 살았던 일속산방에도 나타나고 여유당의 집 꾸미는 데도 나타나고 다산 제자들 집에도 나타납니다. 다산이 내와 외를 갖추었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경학 하는 사람은 경학만 보고, 철학 하는 사람은 철학만 보고, 정치·경제 하는 사람은 정치·경제학만 보는 식으로 다산이 말한 께뚫었다는 걸 지금 우린 께뚫어서 보지 못하고 있죠.

이동국 = 다산 초당 시절에 지은 시에서 ‘내 살가죽을 벗기고 내 뼈가죽을 부수는’ 아전이나 관리들을 비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백성을 하늘로 여긴 유교정치의 종말을 선언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보통 솔바람 소리를 듣고 선의 세계로 향하는데 다산은 선으로 가면서 한편으로 혁명을 생각했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김영호 = 아시다시피 다산이 차를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찻물 끓는 소리를 솔바람 소리라고 그래요. 솔풍성이라고 해요. 다산이 〈목민심서〉를 쓰던 곳이 송풍암이잖아요. 그런데 솔바람 소리와 찻물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추사와 초의라면 다산은 솔바람 소리를 민중의 울부짖음으로 듣고 혁명을 꿈꾸죠.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쓰고 새 시대를 열려고 하죠. 다산의 시가 많지만 대부분이 그런 목적을 가진 시죠. 그냥 자연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주들의 행패에 대한 민중의 분노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정취로 녹아든 거예요. 목적시고 요즘 말로 참여시죠.


이동국 = 그림조차도 다산의 매조도는 아주 적막합니다. 죽음보다 더 차분한 우리 산수화를 보면 그건 영락없이 고도의 관념적인 남종화로 보입니다. 매조도도 매화에 새가 두 마리 앉아 있는데 우리가 매화라고 하면 사군자로 넘어가고 그래서 다산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인의 여기로 심심해서 그린 거 아니냐는 기존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전 그것이 아니라 다산이야



말로 목적을 갖고 그렸다고 봅니다. 다산의 실학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산의 매화는 퇴계가 군자와 형님이라고 부른 매화가 아니라 새가 앉는 나무이고 매조도를 시집가는 딸에게 그려 준 것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수 시절의 산수화도 미술사, 회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학정신의 토대가 된 그림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다산이 강진에서 돌아와 남한강, 북한강에서 친구들과 친척들, 교유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수차례 뱃놀이도 하면서 단지 뱃놀이가 아니라 남한강, 북한강에 얽힌 역사나 풀이나 나무 등을 관찰해 ‘심원산수기’를 썼던 그런 측면의 하나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즉 다산의 예술을 음풍농월하는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도의 관념화인 ‘불이선란도’를 그린 추사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바람을 꺾었다고 비판하는데 다산의 매조도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산의 그림은 소재로 보면 매화나 산수처럼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문인들의 소재로 진부하다 할 정도인데 그걸 그려낸 다산의 입장을 실학사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이 꽃이라면 그 토대가 사상이기 때문이죠.

김영호 = 다산은 서예가로서도 참 독특합니다. 그의 글씨는 다산체로 불려도 좋을 정도로 흥취 있고 도도합니다. 원교 글씨와 통하는 점이 있지만 훨씬 뛰어나죠. 실학의 집대성자라는 프레임이 다산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좋지 않죠. 이런 예술적 성취를 포함해야 합니다.

▲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 경제학자로 경북대학교수, 산업자원부 장관, 유한대 총장 등을 지냈으며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역사현장을 발로 뛰면서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미술사 연구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다산학 연구 100년’ 등 다산 논문은 13편에 이른다.



▲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 서예 전문 큐레이터이다. 한국서예 역사 체계정립을 위한 전시를 30차례 넘게 기획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강진다산기념관의 <다산전>’을 7회째 개최했다. 다산 탄생 250주년기념전시(6월16일~8월5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를 준비 중이다.

주영재 기자 jyeongj@kyunghyang.com

동아일보, 2012.06.13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の 향기]
예술의전당 - 강진 다산기념관

유물 - 자료 150여 점 전시

자연을 노래한 다산의 시 ‘열수선유시권’ 최초 공개

‘조용한 저 운림(雲林)은 푸르고 깊숙하네. 여기서 놀고 쉬며 나의 마음을 즐기노라.’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 48수와 서문을 모은 ‘열수선유시권(冽水船遊詩卷)’ 가운데 한 수다. 다산이 전남 강진에서 해배(解配)돼 고향인 경기 광주군 초부면 마재마을(현재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돌아온 것이 1818년. 그 후 6년이 지난 1824년 고향 친구들과 제자 19명이 회포를 풀자고 모여 한강(열수)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사천사에서 놀면서 지은 시다. 냉철한 학자이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려는 다산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길이 20m에 이르는 ‘열수선유시권’이 최초로 공개된다. 다산의 대표 저술인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도 다산의 친필 가장본 (家藏本·다산이 직접 소장했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전 ‘천명(天命), 다산의 하늘’에서다. 17일~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7월 28일~8월 5일 강진 다산기념관에서 열린다.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보여주는 친필 저술, 붓글씨 시 그림 등 문예작품, 다산의 학맥 가계 사우 문인 등의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공개된다.


이동국 예술의전당 학예사는 “지금까지 다산은 실학자, 경제가, 개혁사상가, 과학자, 건축가, 천주교도, 문인, 예술가, 교육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려졌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로 다산의 전모를 유물과 함께 아울러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전시품은 ‘목민심서’ ‘흠흠신서’ ‘중용강의보’ ‘악서고존’ 등 10여 건 30여 점의 다산 가장본이다. 1925년 대홍수로 남양주시 다산 생가에서 뿔뿔이 흩어진 이래 최초로 한자리에서 공개되는 유물들이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목민심서’는 1902년 광문사에서 납활자로 찍은 책의 원본이 된 정고본(定稿本)이다.

다산이 시집간 딸에게 그려 보낸 족자 ‘매조도’(고려대 박물관 소장)도 공개한다. 매화나무에 새 한 쌍이 노니는 모습을 그리고 시를 적은 데서 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비는 다산의 애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암수 새가 교미하는 장면을 그린 ‘화조도’에서는 다산의 익살이 드러난다. 다산 서거 100주기를 맞아 동아일보 1935년 7월 16일자에 게재된 작품을 비롯해 다산 초상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전을 앞두고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국 예술의전당 학예사(가운데)가 길이 20m에 이르는 ‘열수선유시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강진원 강진군수, 오른쪽은 신영호 강진다산학당 대표.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화 6점도 전시된다. 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묘사한 다산의 초상을 비교해 가며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다산의 주요 제자 중 한 명인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 전경도 볼만하다.

서울 전시기간에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예술의전당 아카데미홀에서 ‘다산학 시민 강좌-천명, 다산의 하늘’이 열린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이 강의한다. 전시는 초중고교생 3000원, 대학생 및 일반인 5000원. 02-580-1660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동아일보, 2012.06.20

[광화문에서/이진영]89학번 정약용, 90학번 서유구

대제학을 지낸 할아버지는 ‘여러문제연구소장’이었다. 천문 지리 농업 언어 등 다방면에 저술을 남겼고, 부인이 “붓과 벼루는 멀리하고 요리를 가까이 하시려나” 걱정할 정도로 부엌 출입도 잦았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냈는데 역시 수학과 천문 분야의 최고수였다. 이런 다빈치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가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渠 · 1764~1845)다.

풍석은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 못지않은 르네상스인이었다. 나이는 두 살 어리고, 1789년 다산에 이어 1790년 과거에 급제했으니 과거시험 기수로는 다산의 한 해 후배가 된다. 두 사람 모두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다산이 38회, 풍석이



62회 등장하는 엘리트 관료였다. 재야로 내쳐진 후 불후의 명작을 남긴 점도 같다. 다산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실학을 집대성했고, 풍석도 관직에서 물러나 집중적인 저술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18년이었다.

다산의 면모를 집대성한 저작이 여유당전서라면, 풍석의 대표작은 ‘조선의 브리태니커’ 임원경제지다. 둘은 여기서부터 다른 길을 걸었다. 다산은 벼슬길에 오른 선비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해야 할 바를 제시한 반면, 풍석은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데 필요한 ‘잡학(雜學)’을 집대성하는 데 매달렸다. 벼슬 귀한 선비 집안에서 자란 다산이 경학과 경제학에 몰두하는 동안, 집안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해낸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자손은 “토갱 지병(土羹紙餅·흙국과 종이 떡)의 공허한 말장난이 싫다”며 비주류 실용학을 파고든 것이다.

다산의 저술 활동엔 18명의 제자가 함께했다. 하지만 풍석은 혼자 힘으로 밭 갈고, 옷 해 입고, 집 짓고, 병 고치고, 제사 지내고, 여가를 즐기는데 필요한 ‘생활의 모든 지식’을 113권 54책 252만7083자에 담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나라 경영이 아닌 잡학 집필은 사대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걸까.

다산은 국학 부흥운동이 한창일 무렵인 1930년대 정인보 선생이 동아일보에 실은 글을 시작으로 업적을 재조명받았다. 하지만 임원경제지는 1939년 보성전문(현 고려대)이 전질을 필사하는 작업을 동아일보가 보도하면서 최초로 언론에 공개됐을 뿐 그 전모는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한국고전번역원도 두 손 들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완역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출연기관이 포기한 번역 작업의 끝을 본 이들은 41명의 소장학자다. 이들은 ‘임원경제연구소’를 차리고 국문학 한의학 경제학 미학 수학 기계공

학 등 전공을 살려 4개의 필사본과 임원경제지가 인용한 853종의 원전을 비교해가며 9년간 매달린 끝에 초벌 번역을 끝내고 최근 개관서를 출간했다. 개관서만 펼쳐 봐도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신기루 속 보물처럼 엿보기도 어려워라”는 독후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구소는 2014년 500쪽 짜리 55권 분량으로 임원경제지를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벼슬길에 오를 때와 내려온 후를 두루 살핀 다산과 풍석 두 문성(文星)이 활약했던 시대가 조선의 르네상스였다. 임원경제지가 완간되는 2014년은 풍석 탄생 250주년이다. 몸소 밭 갈고 물고기 잡으며 천시 받던 공업과 상업에까지 두루 깊은 식견을 보여줬던 열린 지성 풍석과 그가 남긴 저작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진영 문화부 차장 ecolee@donga.com



이진영
문화부 차장

Korea Times, 2012.06.25

Irish scholar traces Dasan's Christianity

By Kang Hyun-kyung

An Irish scholar characterized Jeong Yak-yong (1762-1836), a Korean philosopher and prolific writer often referred to by his pen name Dasan here, as a secret Catholic because he could not speak

about his Christian beliefs in public.

“In no uncertain terms, Dasan lived during a period of religious terror,” Kevin Cawley, a Korean Studies professor at University College Cork in Ireland, wrote in an email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Monday.

“His cousin refused to perform the traditional Korean memorial rite when his mother died, and instead performed Catholic rites and as a result he was beheaded.

This brutal event forced many to withdraw from the church, at least publicly.”

Dasan was later praised as one of the great scholars of his time. But his life was far from easy because he was exiled to the southernmost city of Gangjin, South Jeolla Province in 1801 for 18 years. His links with the Catholic religion, which was banned at that time, caused him to live in isolation for nearly two decades.

During his exile, he produced numerous writings on tough issues in all areas. He revealed curious and knowledgeable interpretations of several academic fields, including philosophy, medical science, engineering and history. His vast writings earned him the nickname “walking dictionary.”

Cawley said Dasan was one of the unfortunate scholars of his



Kevin Cawley,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College Cork in Ireland, stands near where Dasan was exiled in Gangjin, South Jeolla Province, in this photo taken in October 2010. / Courtesy of Kevin Cawley



time because he had to deny his religious beliefs in public for life.

“He had been a hidden Catholic, attending Catholic ceremonies in secret and loaning Italian Jesuit missionary Matatteo Ricci’s book in secret to others in the hope of converting them,” he wrote.

The scholar said Dasan was one of the Koreans influenced by the Italian missionary who is the author of “The True Meaning of the Lord of Heaven.”

Over the past year, Cawley has taught Korean language programs and a course on the religious traditions of Korea and Korean History at the university. He is the first and only scholar teaching such studies in Ireland.

He called last year “very successful.”

“My students were really engaged with the texts we read in translation and in particular, they found Dasan to be a true person,” he said.

“These students were from a philosophy background, not focused on Korean Studies and so they engaged with Dasan’s ideas from an intellectual point of view. Hence they were free of preconceived ideas about Dasan whose ideas are usually overshadowed by an association with “Sirhak” (practical learning).”

Cawley will visit Seoul in July for a conference on Dasan hosted by the Dasan Cultural Foundation. This year marks the 250th anniversary of Dasan’s birth.

hkang@koreatimes.co.kr

[한국학 한류를 이끄는 학자들]〈9〉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다산, 세계화 시대의 방향 제시


“다산 정약용은 세계화 시대에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 유교문화의 집단주의가 조화를 이루길 요구하지요. 유교와 서학의 영향을 모두 받은 다산은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제시합니다.”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다산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아시아학과 교수(67). 그는 다산(1762~1836)의 사상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그는 2008년 외국인 최초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다산학술상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5~7일 서울에서 열리는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를 최근 서울 종로구의 카페에서 만났다.

베이커 교수는 1971~74년 평화봉사단원으로 광주에 머물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광주 동신중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전남도 교육청에서 영어 교사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치며 봉사하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졌다. “원래 중국학을 공부하려고 한국학을 시작했어요. 중국



도널드 베이커 교수가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 앞에 섰다. 요즘 그는 다산 정약용이 정조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중용 강의보’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학자는 중국만 알고 일본학자는 일본만 아는데 한국학자는 한중일 모두를 꿰뚫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시절 미국 내 한국학의 대부로 꼽히는 고 제임스 팔레 교수 밑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학에 매진하게 됐다. ‘조선후기 천주교와 유교의 대립’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다 자연스럽게 다산에 관심이 생겼다. 이 논문은 1997년 일조각에서 한국어 단행본으로 번역 출간됐다.

“다산이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수양하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전통 유교에선 인간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한 것과 달리 다산은 인간에게 도덕적 약점이 있는 만큼 스스로 노력해야 선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현실적 발상이죠. 다산은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다산은 한국학 학자들에게만 일부 알려졌을 뿐이다. 그는 “다산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주요 저작의 번역이 필수”라며 “특히 외국의 대중도 다산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산의 삶과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편지와 수필 번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국의 사상과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다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왔다. 다산의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를 영어로 옮기고 있으며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도 번역할 예정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다룬 책도 쓰고 있다.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그에게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물으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시 서울에 머물던 그는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열흘 뒤 전남 해남군으로 내려갔다. 해남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 근처 한 마을에 내린 뒤 군인들의 눈을 피해 산을 넘어 광주로 걸어 들어갔다. 평화봉사단 시절 가족과도 같았던 하숙집 식구들과 친구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산을 넘다가 시체를 보기도 하고 광주 시내에서 피의 흔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처참한 현장을 보았기에 한국 현대사 연구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아파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할 자신이 없거든요.”

베이커 교수는 “최근 해외에서 젊은이들이 어려운 한문을 배우려 하지 않아 전근대 이전의 한국사 연구자가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라며 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

△1945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출생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학사(철학)

△미국 워싱턴대 석사·박사(조선후기사상문화사)

△1987년~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아시아학과 교수

△2008년 제9회 다산학술상 학술대상 수상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21세기 희망’ 다산에게서 찾는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탄신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2012년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성)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프레스센터와 코리아나호텔에서 ‘세계 유산 : 다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학술회의에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 학자 13명과 국내 전문가 37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학자로는 국내 대표적 다산 전문가인 정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김상홍 단국대 명예교수, 심경호 고려대 교수, 강명관 부산대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해 다산의 사상과 학문 세계를 조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기조 강연은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황견제(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과 국내 한문학 권위자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학술회의는 ‘다산의 일상과 정감’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방법’ ‘다산의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의 신학과 과학’ ‘다산의 정치이념’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다산학의 국제적 지평’ 등 8부로 나눠 진행된다.

마지막 8부에서는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을 주제로 집담회가 열린다.

학술회의에 앞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큐멘터리 ‘조선을 깨운 다산, 미래를 기다린 꿈, 여유당(與猶堂)’이 상영되며 기념 공연도 펼쳐진다.

추진위원회는 28일 “이번 학술회의는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다산학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산학 및 다산의 시대에 대한 동아시아 학술연구를 위해 세계적 연구그룹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yunzhen@yna.co.kr

연합뉴스, 2012.07.03


“다산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

외국 학자들이 본 다산 정약용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나는 전 세계가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또 19세기 한국의 성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나의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도널드 베커 교수)

“다산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

외국의 석학들이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의 사상과 철학에 찬사를 쏟아냈다.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개막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산의 학문 세계를 고찰한다.

기조 강연을 맡은 황천제(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은 3일 미리 공개한 강연문에서 “다산은 동아시아 유학사 중에서 현 것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주조하는 전승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황 원장은 “18세기 조선의 정약용은 17세기 일본의 이토 진사이, 10세기 중국의 대진(戴震)과 함께 경직화된 주자학을 계승하면서 창조적 혁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글로벌화의 추세가 시대의 발전 주류인 21세기에서 다산학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한 사상적 유산과 정신적 자원, 특히 ‘사물이 원리에 앞선다’(事先理後)는 실학 정신과 문학적 가치로 정치군사적 충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 건립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도널드 베커 교수는 연구논문 ‘유교 경전에 대한 다산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에서 “다산은 실용주의적인 사상가”라고 정의하면서 “그는 실행되었던 것(what worked)에 관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는 인간 심리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그리고 덕성을 수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유교 경전들을 탐색했다”면서 “다산이 200년 전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 경전들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다산의 사상이 외국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베커 교수는 “다산은 여전히 한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다산의 철학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산 저서들에 대한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레이덴대의 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는 다산을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필적하는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역사인류학 자료로서 다산의 저술들’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세계적으로 그토록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다양한 것들에 몰두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면서 “다산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고 추켜세웠다.

발라번 교수는 “다산은 문헌학적 텍스트 비평·정치철학·통치학부터 보루나 교량을 건설하고,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을 보관하는 최선의 방법, 천연두의 원인과 그 예방법까지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 학자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학자로는 국내 대표적 다산 전문가인 정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김상홍 단국대 명예교수, 심경호 고려대 교수, 강명관 부산대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해 다산의 사상과 학문 세계를 조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yunzhen@yna.co.kr



한겨레신문, 2012.07.03 (화)

다산 탄신 250돌 국제학술회의

올해 탄생 250돌을 맞은 대학자 다산 정약용을 기리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가 6~7일 서울 태평로 언론인회관과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다.

‘다산 정약용 탄신 2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학술대회는 ‘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최근 다산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유럽·미주 등 세계 8개국에서 온 국외 학자 13명과 국내 전문가 37명이 참여해, 다산학뿐 아니라 다산이 살았던 18~19세기 문명전환기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의 학술연구를 위한 국제 연구그룹 결성의 계기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사상사 연구의 권위자인 황천제 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과 국내 학계에서 한시의 대가로 꼽히는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다산의 일상과 정감’ ‘다산의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의 신학과 과학’ ‘다산의 정치이념’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다산학의 국제적 지평’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 등 다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02)585-0484.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국경제, 2012.07.03

‘세계 유산 다산...’ 주제로 5~7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외 다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은 5~7일 사흘간 서울 프레스센터와 코리어나호텔에서 ‘세계 유산: 다산 프로젝트-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 김상홍 단국대 석좌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국내외 학자 50명이 참여, 다산의 사상과 학문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일보, 2012.07.04 (수)

정약용 탄생 250주년 학술대회 ‘세계유산-다산 프로젝트’ 개막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 사상의 현재적 가치를 조명하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세계유산-다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7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다. 유네스코가 장 자크 루소(탄생 250주년), 드뷔시(탄생 150주년), 헤르만 헤세(사망 50주기) 등과 더불어 올해 기억할 인물로 다산을 선정한 것에 맞춘 행사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다산학술문화재단



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이다. ‘다산 선생이 지금 이 시대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초점이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등 한국 학자들 외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학자 13명이 참가해 다산을 다시 읽고 다산에게 길을 묻는다.

한국경제, 2012.07.05(목)

[다산에게 길을 묻다]

“다산의 실학 정신, 21세기에도 유효”

“사선리후(事先理後), 즉 사물이 원리에 앞선다는 실학 정신 및 문화적 가치와 이념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장벽이나 군사적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다산의 주장은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황권제 대만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

“다산은 실용주의적 사상가다. 그는 인간 심리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과 덕성을 수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경전을 탐색했다. 200년 전 인물인 다산이 경전에서 발견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할 수 있다.”(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세계적으로 다산만큼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것들에 몰두했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산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다”(바우더베인 발라번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다산의 사상과 삶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5일 개막됐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추진회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7일까지 사흘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와 코리아나호텔에서 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산학의 현재적 쟁점과 시사점을 탐구한다.

다산 탄생 250주년 학술대회 … 7일까지 프레스센터 등서

황원제 대만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유학 중의 다산학: 21세기의 시각에서’라는 기조강연에서 “다산은 동아시아 유학, 특히 주자학을 융합해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와 접목을 시도했고 유학사상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 유학의 핵심 가치인 인(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로 해석해 도덕적 주체로서의 사람을 실천적 주체인 동시에 상호적 주체로 본 게 다산의 창조적인 논점”이라고 설명했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산학 연구의 제문제’에서 “다산은 성리학적 우주론의 이(理)의 실재를 부정하고 상제(上帝)로 대체시켜 유기체적 자연관이 아닌 인간의 자주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존 터커 미국 이스트카롤리나대 교수는 “다산은 법(法)을 통치자들이 만든 규칙이면서도 백성들의 유용성과 바람들을 반영하는 규칙으로 정의했는데 통치에 따라 백성들이 억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다산은 그런 통치자의 제거를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문화일보, 2012.07.05(목)

“다산의 事先理後 정신, 21세기에도 유효”
탄신 250주년 국제학술회의

“18세기 조선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17세기 일본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 1627~1705), 18세기 중국의 대진(戴震 · 1724~1777)과 함께 경직된 주자학을 비판하고 초월하려는 새로운 사상 동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다산은 주자학을 계승하면서 창조적 혁신을 했고, 일본 고학파(古學派)를 참조하면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사상체계를 수립했다.”(황천제 · 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

“다산의 학문적 기반은 많은 부분이 성리학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동질성 못지않게 ‘많지 않은 부분’의 변별성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산 사상의 특징 중 하나인 상제론(上帝論) 등에서 보이는 변별성이 성리학과 다산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성)가 주최하고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관한 국제학술회의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 원장은 다산 사상을 ‘반(反)주자학’이 아닌 ‘포스트 주자학’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 연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맹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해외 학자로는 드물게 1980년대부터




다산에 주목해온 황 원장은 이날 ‘동아시아 유학 중의 다산학: 21세기의 시각에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무엇보다 “다산학에 내포돼 있는 풍부한 사상적 유산과 정신적 자원, 특히 ‘사물이 원리에 앞선다(사선리후·事先理後)’는 실학정신과 문화적 가치로 정치군사적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 건립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산 시 연구의 권위자이자 곧 출간을 앞둔 다산학술문화재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본화 사업’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한 송 교수는 ‘다산학 연구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성리학과 다산 사상의 관계 정립, 다산과 천주교와의 관계 규명, 다산학단(茶山學團)에 대한 연구 심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1938년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가 완간된 이래 지금까지 200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300여 편의 석·박사 논문, 100여권의 연구저서가 출간돼 ‘다산학’이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의 개념부터 시작해 다산의 학문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다산 프로젝트-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7일까지 프레스센터와 코리아나호텔 등지에서 이어진다. 5일 국제학술회의 개막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도 열렸다.

해외 학자 13명과 국내 전문가 37명이 참여한 국제학술회의는 ‘다산의 일상과 정감’ ‘다산의 텍스트, 다시 읽기’ ‘다산학의 회고와 전망’ ‘다산학의 국제적 지평’ 등 다산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8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7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마지막 세션은 ‘다산과 21세기 문명의 전환’을 주제로 한 집담회로 꾸며진다.



다산학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이를 위해 갈길이 멀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는 7일 발표하는 논문 ‘유교 경전에 대한 다산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다산은 여전히 한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유교 경전에 대한 다산의 주해서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같은 자서전적인 글과 편지들,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 썼던 묘지명 등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길가에 떨어진 자신의 편지를 백년 뒤 사람이 읽어보아도 전혀 거리낄 게 없기를 바라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다산의 간찰(簡札·편지)에 대한 인식을 밝힌 박철상 포럼 그림과 책 공동대표의 ‘간찰을 통해 본 다산-문집 미수록 간찰을 중심으로’ 등 흥미로운 주제의 글들이 많이 발표된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

연합뉴스, 2012.07.05(목)

〈문명의 전환기 다산에게 길을 묻다〉(종합)

다산 탄신 25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막

“세계적 연구그룹 구축의 시발점될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탄신 250주년을 맞아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성)가 주최하고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관하는 다산학 국제학술회의가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 학자 13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해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한다.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세계 유산: 다산 프로젝트’.


학자들은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돌아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본다.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황견제(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다산의 사상 중 실학 정신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원장은 “글로벌화의 추세가 시대의 발전 주류인 21세기에 다산학에 내포되어 있는 풍부한 사상적 유산과 정신적 자원, 특히 ‘사물이 원리에 앞선다’(事先理後)는 실학 정신과 문학적 가치로 정치군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 건립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유당 정보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다산 연구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다산학 연구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는 ‘여유당전서’의 정보화(定本化)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오는 10월 다산의 저작집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를 완간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쑤핑(李甦平) 연구원은 ‘다산 경학 사상의 실천성’, 존 터커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정약용과 동아시아 유학의 의미로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밖에 국내 대표적 다산 전문가인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산이 승려에게 준 증언첩과 교학 방식’을 비롯해 ‘다산의 의약생활과 건강관리’(신동원), ‘간찰을 통해 본 다산’(박철상), ‘다산과 명칭문학’(강명관), ‘다산의 가계와 그 지친(至親)들’(김언중) 등의 연구논문이 소개됐다.

6일과 7일에는 세계적인 다산학 권위자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도널드 베커 교수, 네덜란드 레이덴대의 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 대만대 차이전평(蔡振豐) 교수,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스쿨(SOAS)의 앤더슨 칼슨 교수,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고지마 야스노리(小島康敬)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7일 행사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번 학술회의는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다산학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산학 및 다산의 시대에 대한 동아시아 학술연구를 위해 세계적 연구그룹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unzhen@yna.co.kr

연합뉴스, 2012.07.05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12.7.5

jeong@yna.co.kr

동아일보, 2012.07.05(목)

[정약용 탄생 250주년…茶山의 향기] “만물박사 정약용, 그는 한국의 다빈치”

■ 다산 프로젝트 국제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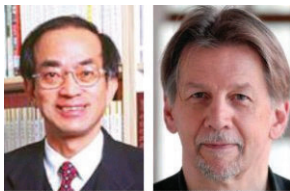
“다산은 문화의 가치와 이념으로 국가 간 정치적 장벽이나 군사적 충돌을 해소하고 초월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 건립

에 공헌할 것이다.”(황준제 · 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모여 다산의 사상을 21세기 세계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5~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와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 다산 프로젝트’ 국제학술회의다. 부제는 ‘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이다.

황 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다산의 실학사상은 ‘사물(事)이 원리(理)에 앞선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해석했다. 다산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행위(事)를 완성한 뒤에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理)를 체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이(理)’는 권력을 장악한 소수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약소국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며 “다산의 명제는 21세기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 관계와 세계 질서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바우더베인 발라번 네덜란드 레이던대 교수는 “다산은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그토록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몰두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며 다산을 ‘보편적 인간(homo universalis)’으로 칭했다. 발라번 교수는 “다산은 문헌학적 텍스트 비평, 정치철학, 통치학에서부터 교량을 건설하고 여름에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는 방법, 천연두의 원인과 예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며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황준제 원장

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



도널드 베이커 교수

김상훈 교수



그러나 ‘다산의 세계화’는 아직 걸음마도 못 댄 수준이다.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다산이 서양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57년 그레고리 헨더슨이 아시아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 ‘정다산: 한국 지성사의 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현재까지 다산의 철학에 관한 영어 단행본은 두 권에 불과하다. 베이커 교수는 “다산의 저술을 한문으로 읽을 수 있으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유창한 학자들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홍 단국대 석좌교수는 “우리 학계는 1962년 다산 탄신 200주년에 아무 행사도 열지 않았지만 북한은 당시 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을 출간한 것으로 보아 국책 과제로 다산 연구를 했다”며 “남북한 학자가 공동연구를 진행해 다산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앤더스 칼슨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교수, 존 터커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대 교수, 팡하오판(方浩範) 중국 옌벤대 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민 한양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뉴스시스, 2012.07.05(목)

다산 탄신 250주년 행사, 최광식 장관



【서울=뉴스시스】 박문호 기자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만찬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시스, 2012.07.05(목)

건배하는 최광식 장관과 정해창 이사장



【서울=뉴스시스】 박문호 기자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만찬 행사에서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

다산탄신 기념식 참석한 김 총리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우성 다산 탄신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식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 축하하는 김 총리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목)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서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시스, 2012.07.05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식



【서울=뉴스시스】 김기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우성 다산 탄신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뉴스1, 2012.07.05

김황식 총리,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 축사



(서울=뉴스1) 손형주 인턴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2.7.5/뉴스1
(서울=뉴스1) 손형주 인턴기자

Korea.net, 2012.07.05

Dasan rediscovered: a glance at Joseon's prominent scholar

One of the most prominent thinkers in the late Joseon Kingdom, Jeong Yak-yong (1762-1836, penname Dasan), earned several epithets. He was known as the renowned theorist of Silhak (practical learning), author of Mongminsimseo (The Mind of Governing the People), architect of the UNESCO-designated World Cultural Heri-

tage site Suwon Hwaseong Fortress, and inventor of the geojunggi (heavy stone lifter), among many others.

Still an exemplary role model among generations living today, the life of Dasan, his achievements, his compassion for the plight of the lower classes, and his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tinue to resonate in Korean society.

Dasan's intellectual and spiritual influenc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s on a global scale. At UNESCO's 36th General Assembly held last October, Dasan's 250th birthday in 2012 was submitted to the list of Celebration of Anniversaries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his philosophical contributions in line with UNESCO's main pillars.

The event marked the first Korean individual's anniversary added to the UNESCO lis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4. Among the latest additions adopted by UNESCO were the 3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Jean-Jacques Rousseau (2012) and the 50th anniversary of Martin Luther King's "I Have a Dream" speech (2013).

Marking the 250th birthday of the great Korean Confucian scholar, a series of major commemorative events and academic conferences are being held throughout this year to pay tribute to the virtue and practical spirit of Silhak, or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allegedly known to have been advocated by Dasan.





(left) Portrait of Dasan; (right) Suwon Hwaseong Fortress (photos courtesy of the Museum of Silhak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Heritage of Humanity: Dasan's Schematics for a Livable World

The Korean philosopher was an unquestionable polymath. He was revered for his ingenuity as a noted poet, painter, architect, engineer, scientist, educator, and prolific writer, who best epitomized the 18th-century Silhak, a Korean Confucian social reform movement. A close confidant of King Jeongjo (ruled 1776–1800), Dasan was a social reformer who actively engaged in his assertion that an open-door policy of benevolent statecraft and the heritage of pragmatism would lead to national prosperity. Not only had he devised *geojunggi* to build Suwon's Hwaseong Fortress incorporating architectural elements of both the East and the West with the latest construction technology, but he also molded the old to shape the new in the making of East Asian Confucianism.

Amid an ever-growing academic fervor on re-illuminating the accomplishments of one of Korea's most distinguished theorist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s taking place from July 5 to 7 in Seoul. Hosted by the Tasan Cultural Foundation(following his penname

Tasan in the older romanization), the conference brings scholars and specialists together to exchange insights and provide an academic platform reflecting his message in the contemporary context of the globalized age of the 21st century.

“Dasan crated a brand-new trend in Confucian though by synthesizing the learnings of his East Asian Confucian heritage with the Catholicism that he encountered,” said Chun-chieh Huang, Dean of the Institutes for Advanced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t the opening keynote on July 5. “In the making of East Asian Confucianism, Dasan poured new wine into old wine-skins, paving a new way toward future development.”

“In this age of rising globalization, the treasure of Dasan’s learning, his intellectual legacy and spiritual resources -- especially his practical thesis that ‘affairs precede principles’ and his advocacy of using cultural values to transform and transcend the impact of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 can all play a vital role in the building of a more just world order for the 21st century and beyond.”

Professor Donald Baker of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ho was the first non-Korean national awarded the Tasan Prize in 2008, regards Dasan’s pragmatic values as timeless and spaceless, in the context that it guides an individual to responsibility as a component of a community. Also in attendance was Professor Boudewijn Walraven of Leiden University, who likened Tasan



Dean Chun-chieh Huang delivers the opening keynote address “The Role of Dasan Learning in the Making of East Asian Confucianism”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uly 5 (photo: KOCIS).

to famous Renaissance Man Leonardo Da Vinci.

Over the three-day run, over 30 authorities in the field from both home and abroad provide valuable insights on Dasan studies and the practical nature and mindedness of his thought, while assessing its future implications. International

panels featured at the forum include Professor John A. Tucker of East Carolina University and SOAS senior lecturer Anders Karlsson, among other experts and local academics such as Professor Jung Min of Hanyang University and Honorary Professor Ahn Byung-ji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al exhibitions shed light on Joseon’s thinker Dasan Jeong Yak-yong

Throughout the summer, a series of special exhibitions shedding light on Dasan’s life, oeuvre, and new intellectual trends which helped East Asian Confucianists critique and think beyond the scope of Zhu Xi’s learning will run at Seoul Arts Center and the Museum

of Silhak in Namyangju City, Gyeonggi-do (Gyeonggi Province).

Until July 22, the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inside Seoul Arts Center presents the special exhibition Dasan Jeong Yak-yong featuring an exquisite treasure trove of about 150 books, pictures, drawings, and relics. Visitors can also view the copy of Mongmin-simseo (The Mind of Governing the People -- a book on how to serve as an effective ruler) owned by Dasan.

“It is the first time we have gathered the relics and remains of the Dasan legacy on such a nationwide scale,” said Chair Professor Kim Young-ho, giving a congratulatory address at the opening. “I hope the exhibition will project the spirit of Dasan into our contemporary society.”

From July 28 to August 5, the 250th anniversary celebration will travel to Gangjin County in Jeollanam-do (South Jeolla Province), where Dasan lived as an exile for 18 years. The exhibition will be unveiled in conjunction with the 40th Gangjin Celadon Festival at multiple venues including the county’s kiln sites, which ar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nother exhibition is currently on view at the Museum of Silhak located in Namyangju, the hometown and birthplace of Dasan, until September 9. Named Dasan, His Life and Ideal at Han River,



Mongminsimseo, one of the representative books authored by Dasan (photo courtesy of Seoul Arts Center)

the exhibition displays a rich selection of Dasan's books, pictures, drawings, and relics, portraying his thoughts and studies and tracking the scholar's achievements and footprints along the Han River, where he was born and buried.

Visitors may enjoy a number of hands-on activities tailored for families and children. On his actual lunar birthdate slated for August 4 and 5 this year, a traditional feast is also planned.

Meanwhile, the relay of commemorative events will continue through this autumn. Commemorative traditional music concerts are scheduled in August and September at Namsangol Hanok Village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 In October, a formal compilation of all Dasan's works handed down through diverse copies

of his manuscripts is set to be published.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Tasan Cultural Foundation at: www.tasan.or.kr.



(left) View of the special exhibition Dasan, His Life and Ideal at Han River; (center) Ume Flowers drawn by Dasan; (right) Dasan's poems for the four seasons of Socheon (photos courtesy of the Museum of Silhak)

By Hwang DanaKorea.net
Staff Writer

“다산, 글로벌한 박학다재(博學多才)”
“다산학, 세계질서에 공헌”

탄생 250주년 국제학술회의… 7일까지 이어져

“다산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500여권이나 저술을 남긴 ‘박학다재한 인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할 만하다.” (바우더베인 발라변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



“다산의 실학 정신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황견제 · 黃俊傑 대만대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의 사상을 21세기 세계적 맥락에서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황견제 원장은 “다산학에 내포돼 있는 풍부한 사상적 유산과 정신적 자원, 특히 ‘사물이 원리에 앞선다(事先理後)’는 실학 정신과 문화적 가치로 정치·군사적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세계질서 건립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산의 실학 사상은 우리에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행위(事)를 완성한 뒤에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理)를 건립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理)’는 권력을 장악한 소

수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약소국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2012년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성)가 주최하고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의 부제는 ‘문명 전환기에 다시 읽는 다산학’. 6일 프레스센터, 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어지며 해외 학자 13명을 포함해 50여명의 학자가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한다.

이날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성리학과 다산 사상의 관계 정립, 다산과 천주교와의 관계 규명, 다산학단에 대한 연구 심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다산학 연구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는 ‘여유당전서’의 정본화(定本化)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7일에는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 바우더베인 발라번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인다. 바우더베인 발라번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세계적으로 다산만

큼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몰두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며 “문헌학적 텍스트 비평, 정치철학, 통치학에서부터 교량을 건설하고 여름에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는 방법, 천연두의 원인과 예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룬 ‘박학다재한 인간’이다. 철학이나 지성사 이외의 다른 학문분야에도 풍부한 자료를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다산의 과학기술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산학의 세계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다산은 여전히 한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산의 저술들을 한문으로 읽을 수 있으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이 필요하다. 유교 경전에 대한 다산의 주해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같은 자서전적인 글과 편지들,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 썼던 묘지명 등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7일 발표한다.

허윤희 기자

Korea Herald, 2012.07.11

Tracing Catholic influence in Dasan's works, life

Irish scholar shares his view on the leading philosopher of late Joseon

Love your people, and serve their interest -- not yours.

The message of Dasan (1762–1836),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in the late Joseon period, transcends time and cultural boundaries. It certainly was the case for Irish scholar Kevin N. Cawley when he read one of Dasan's texts a number of years ago. Cawley, who grew up Catholic, saw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teachings of Catholicism and the Joseon scholar's writing.



Irish scholar Kevin N. Cawley poses for a photo prior to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on Monday. (Chung Hee-cho/The Korea Herald)

“We know that he had read Buddhist texts, Christian texts and Confucian texts,” said Cawley, who participated in a recent forum on Dasan organized by Tasan Cultural Foundation in Seoul last week.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e socio-political context in which he lived. And I think if we don’t consider that, then any attempts to understand his texts are ahistorical.

“The context in which he lived was very different for Catholics than for Buddhists and others, because it was the Catholics who were under attack. And we know through Dasan’s writings that he himself was baptized, and was involved with Catholic ceremonies with his brothers and his mentor Yi Byeok.”


Dasan, whose famous texts include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or “Mongmin Simseo,” which describ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 governor should observe, lived in exile for 18 years in the countryside after he was accused of being a Roman Catholic convert in the early 1800s. His older brother Jeong Yak-jong (1760–1801) in fact was the leader and martyr of the first Ko-

rean Catholic community, which suffered persecution by the government. Many of Dasan's close friends and relatives were executed for their Catholic faith, including his brother-in-law and scholar Yi Seung-hun (1756-1801) and his niece Jeong Jeong-hye.

The philosopher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pioneers of "Silhak," a Confucian social reform emphasizing "practical learning" that flourished in late Joseon period. Some local scholars argue that Dasan is solely a Confucian scholar, stressing that he officially stated he does not believe in Catholicism in 1791.

"His life was shaped by Christianity," Cawley told The Korea Herald. "It is a fact that he spent 18 years in exile because of Christianity on top of losing all of his friends. I think there is this deep psychological trauma of Dasan that we sometimes overlook by trying to emphasize Dasan as a scholar and not appreciating him as a human being at the time of great religious terror."

Cawley said he is not trying to prove that Dasan was a Catholic. Rather, he is interested in the traces of Catholicism that remained in Dasan's works. In "Mongmin Simseo, "for example, Dasan critiques shamans and Buddhists as well as other supernatural beliefs, saying they should be eliminated as they lead the people astray, but does not criticize Catholicism, according to Cawley. Dasan's concept of "Sang-je" also resembles Christians' God, as he wrote he is "the being that creates and governs and looks after heaven, earth and all things."



Many of his theories regarding serving the people also are linked with the Christian idea of charity, he said.

“ ‘Mongmin’ of ‘Mongmin Simseo’ actually means shepherding the people,” Cawley said.

“Dasan said the goal of a government is to serve people, not to rule people.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in the 21st century is extremely important in Korea, in Ireland, and in all over the world. We still have religious wars.

“I think Dasan has something to teach us about tolerance as well. And that’s why I present him as a great interdisciplinary thinker of great intellectual dexterity, rather than as a Korean, or a Confucian philosopher.”

Cawley currently teaches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College Cork (UCC) in Ireland, which is the only Irish university that offers Korean studies courses. He is scheduled to hold a Korean Studies Conference in UCC next February with the help of local scholars he met during the Dasan forum last week.

By Claire Lee (dyc@heraldcorp.com)

한국적 지식 풍경 벗어나야 세계지성 다산을 만날 수 있다 다산탄신 250주년 기념 다산학국제학술회의 풍경

다산 정약용, 장 자끄 루소, 클로드 드뷔시, 헤르만 헤세.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유네스코가 지정한 올해의 문화인물이란 점이다. 2012년은 다산 정약용(1762.6.16~1836.2.22) 탄신 250주년이 되는 해다.

학계도 조선이 낳은 천재 실학자 다산을 재조망하는 각종 학술대회로 분주하다. 우선 지난달 9일 고려대에서 한국한문학회와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다산 연구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있었다. 50여 명의 국내 연구자(실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등)가 모여 다산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다산 자체가 문헌학으로부터 예학, 경학 등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교수신문〉 649호)



▲ 출처 : 김호석 화백이 2009년 그린 다산 초상화. 전남 강진 다산기념관 소장.

지난 5일부터 3일간 코리아나호텔·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관한 국제학술대회 ‘세계유산: 다산프로젝트’도 이어졌다.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다산의 일상, 정치이념, 신학, 텍스트 등 다양한 층위로 다산학에 관한 담론을 풍성케 했다. 오는 10월이면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여유당전서』 정본화 사업도 완료된다.



다산을 바라보는 국내외 학자들의 시선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산을 바라보는 국내외 연구자의 시선 차이다. 국내 연구자들이 간찰을 비롯한 다산의 텍스트와 일상, 가족 계보, 문학 등 조선사 속에서의 다산을 다뤘다면, 외국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유학의 흐름 속에서 다산의 위치를 정립하려고 했다. 黃俊傑 대만 인문사회고등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 「동아시아 유학 중의 다산학: 21세기의 시각에서」에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산을 포착해냈다.

그는 2천500년 전 중국 산둥반도에서 기원한 유학이 동아시아로 확산된 점에 주목했다. 2천 년간 보편적 가치와 지역별 특수성을 갖게 된 ‘동아시아 유학’은, 조선에서 국교의 지위를 획득하고, 중국유학과 일본유학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것. 동아시아 삼국의 유학사 지형도를 그려낸 그는 그 안에서 다산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천주교와의 접촉’과 ‘유학의 새로운 방향 개척’에서 찾았다. 다산의 사상이 워낙 방대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유학사 중에서 현 것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주조해 낸 전승자의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동서남북의 가운데에 있으면 어디든 다 중국이다. 소위 ‘중국’이라는 것은, 요순우탕의 다스림이 있는 중국이다. 공안사맹의 학문이 있는 것이 중국이다. 오늘은 무엇으로 ‘중국’이라고 부르는가? 성인의 다스림이나 성인의 학문은 동국에 옮겨졌으니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여유당 전서』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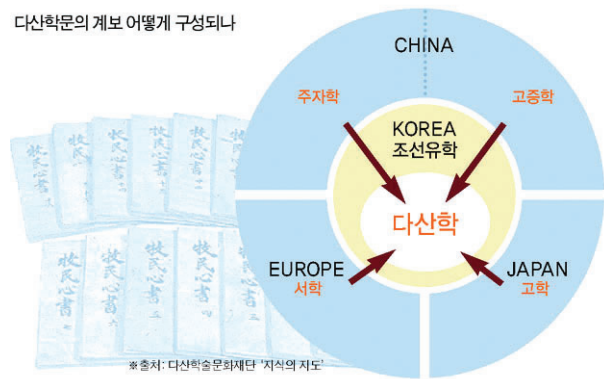
지리적 위치로 ‘중국’을 정의하는 것을 반대했던 다산은 문화의 가치와 이념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장벽 혹은 군사적 충돌 해소를 주장했다.

黃俊傑 원장은 다산의 주장이야말로 21세기 세계 질서의 재건에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전문가인 김상홍 단국대 석좌교수(한문 교육)는 「다산의 문학 연구」에서 그동안 주요 연구의 성과를 한국, 북한 및 중국 순으로 정리하고, 연구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1862년, 득세하는 탐관오리 문제로 신하들이 철종에게 『목민심서』를 추천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산 사후 26년에도 이미 다산 연구의 중요성이 존재했음을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부국강병을 꿈꿨던 고종이 『흠흠신서』·『경세유표』 등을 저술한 다산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동시대에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4년에 걸쳐 『여유당전서』 전질 154권을 발행한 것이 다산 연구의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5년 광복 이후, 다산 문학을 주목했던 洪以燮을 시작으로 시론, 문장론을 연구했던 1970년대의 김지용, 김상홍, 그리고 강진 유배 시절의 교육활동 및 성과를 조명한 1980년대 임형택 등으로 이어지는 다산 연구의 계보도 정리했다.

다산학문의 계보 어떻게 구성되나



다섯 가지 다산 문학 연구 과제

김 교수는 다섯 가지의 다산 문학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해설 일색인 연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국애민의 정신이 내재된 사회시만 다산시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주제별, 장르별로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둘째는 다산의 산문 연구가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한 연구분야를 지적한 셈이다. 셋째는 소실된 다산시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산이 50세(1811)부터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57세(1819)까지 8년간의 문학적 공백기를 복원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다산의 한글 시조집에 대한 연구다. 이는 새로운 다산 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공동 연구이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 국책과제로 다산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연구가 다산학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산의 일생과 사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플릿도 선보여 학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처음 선보인 이 ‘지식의 지도’는 문화총괄기획팀 캠프21에서 기획했다. 다산의 ‘사상지형도’는 생애, 경학 등의 산발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정확한 체계에 의해 표를 갖춘 것으로 누구나라도 이 지도 한 장이면 대략적으로 다산학을 탐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중·고·대학생까지 볼 수 있지만, 연구자들도 이 지도 한 장이면 한 학기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지도의 방향과 표지판이 명확하며 충실하다.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지도를 영어, 일본어로 번역해 수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원효, 퇴계, 율곡 등 전통 사상가, 지성의 지도도 만들어 해외 전시 및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마지막 순서는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교육)가 좌장을 한 집담회였다. 각 세션의 사회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션별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만을 나누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아쉬움을 자아냈다. 2012년에 다산의 학문이 유효기간이 끝난 것인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인문학부)가 “다산이 근대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대화가 일단락된 지금으로서 다산의 시효가 다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산이 추진했던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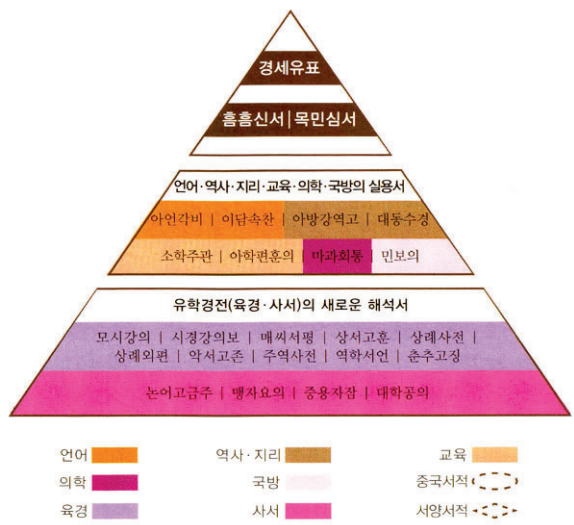
이 다 이뤄지진 않았고, 실현된 근대로서의 기획과도 거리가 있었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논쟁의 불씨가 제대로 집화되지 못한 셈이다.

최재목 영남대 교수(동양철학)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기존 전통의 연구틀에 갖힌 다산학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연구를 가능케 하도록 푸코 등의 새로운 학자들과 자유롭게 비교하


는 작업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다산 하면 강진, 양수리 등의 유배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주화 과정의 트라우마라고 지적하면서 다산을 한국의 지식 풍경에 가두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다산의 ‘사상적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자는 주장으로 읽힌다.

두 번의 다산탄신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나갔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퇴계 이황처럼 중심연구소와 지역거점별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다산관련학회는 다산학술문화재단과 강진에 위치한 연세대 국학연구원 부설 다산실학연구소 정도다. 지난달에 다산학술대회를 주최한 곳은 한국한문학회와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이다.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다산’을 주목하지만, 각각의 설립취지가 다르다. 꾸준하고 응집력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통일된 연구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또 그간 국학에만 집중됐던 다산 연구의 확장이다. 김신자 빈 대학 교수의 노력으로 다산을 유럽 학계에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외 학자들간의 체계적인 공동연구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사례기도 하다.



▲ 오백만자로 풀어낸 『여유당 전서』



일단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기념하는 생일상은 성대하게 차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의 아젠다가 지정돼야 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과 구체적인 수행계획, 그리고 이를 운영해 나가는 거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국가의 일부 보조나 민간재단의 재원을 통한 산발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300주년 학술대회의 풍경도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중앙일보, 2012.08.20

시조 · 판소리로 돌아보는 ‘르네상스적 인간’ 정약용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무대

‘성인의 도(道)도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제왕의 정치도 음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천지만물의 정(情)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의 큰 학자였던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은 자신의 음악 철학을 밝힌 글 ‘악론(樂論)’에 이 같이 썼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이 음악을 즐기고 연구한 음악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음악은 동양사상에서 통치 · 인격의 동의어로 인식됐다. ‘흥어시(興於詩), 입어례(立於禮), 성어악(成於樂)’이라는 공자의 말이 대표적이다.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자신을 확립하며, 음악에서 완성한다’는 뜻이다. 일상의 실천을 강조했던 다산은 음악이 백성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며, 따라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음악의 힘을 알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직

접 음악의 성률(聲律)과 악기를 연구해 『악서고존(樂書孤存)』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음악인으로서의 다산을 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최하는 ‘다산의 숨결을 소리로 펼치는 한마음 큰 잔치’다. 2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는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흥취를 음악으로 재구성

하는 제3회 다산음악회가 열린다. 9월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다산의 삶을 판소리로 엮은 창작 판소리 ‘다산’이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음악의 언어로 다산을 만나다 = 다산음악회는 다산의 시를 음악으로 재구성한 실험적인 공연이다. 1부에서는 ‘샘 위에 붉게 핀 두서너 가지 복숭아 꽃’으로 시작하는 다산의 평시조 ‘샘 위에’와 사설시조 ‘사람이’를 중요무형문화재 가곡 이수자인 변진심씨가 부른다.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유창씨가 다산이 강진 유배시절,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애통해하며 쓴 시 ‘애절양(哀絶陽)’과 모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돌아본 ‘얇미운 모기’를 각각 송서(誦書)와 잡가(雜歌)로 공연한다. 송서는 옛 선비들이 글을 읽던 가락을 되살린 국악의 한 장르, 잡가는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불리던 민속악의 하나다.

다산은 17세 되던 해 장인이 부임해 있던 진주를 방문해, 남강 촉석루에서



24일 열리는 다산음악회에서 공연될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다산은 열일곱 살에 진주 남강 촉석루에서 검무를 보며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푸른 뱀이 백 번이나 가슴을 휘감는 듯” (시 ‘무검편증미인(舞劔篇贈美人)’ 중)이라고 읊었다. [사진 문화재청]



우리 전통 음악의 이치를 밝힌 다산의 음악이론서 『악서고존』. [사진 서울 예술의전당]

기생들의 검무를 감상하며 긴 시를 지었다. ‘무검편증미인(舞劍篇贈美人·칼춤 시를 지어 미인에게 주다)’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무희들의 화려한 춤사위를 사실적이면서도 낭만적으로 묘사한 수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산의 시가 스크린에 비춰지는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진주검무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다산의 한시를 한글 가사로 옮긴 김세종 다산연구소 연구실장은 “다산의 시를 노래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잡가·시조·판소리·송서 등 국악의 다양한 음악양식을 선보인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시경=음악회 2부에서는 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은 경전 『시경(詩經)』이 음악으로 되살아난다. 음악을 사랑했던 다산은 정조가 『시경』에 대해 조목별로 질문한 것을 강의 형식으로 답한 책 『시경강의』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악보가 전해지지 않는 시경의 시들을 대금·피리·가야금·아쟁·장고·북 등이 함께 하는 국악 실내악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조선 후기의 학자로 반계(礪溪) 유형원과 성호(星湖) 이익 등으로 이어져 온 실학을 계승하고 집대성했다. 경학자·경세가인 동시에 과학자·의학자·언어학자·지리학자로도 높이 평가된다. 천주교 박해사건인 신유사옥에 연루돼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을 남겼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수원 화성 쌓는 장면 박력 있는 소리 만날 것

판소리 '다산' 정희석 명창

9월 4일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창작 판소리 공연 '다산'은 정약용의 일생을 한국 고유의 판소리로 구성한 색다른 시도다. 다산의 어린 시절부터 과거급제와 관리생활, 그리고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기 전까지의 삶을 1시간 30분짜리 공연으로 꾸밀 예정이다. 유배 이후의 삶을 다룬 2부는 11월에 공연된다.




김세종 다산연구소 연구실장이 쓴 창본을 바탕으로 소리를 엮어 들려줄 국립국악원의 정희석(48·사진) 명창을 만났다. 정희석 명창은 4대째 강산제 보성소리의 맥을 잇고 있으며 제 27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2007년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판소리, 전에 보지 못했던 무대다.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5바탕(춘향가·심청가·수궁가·흥보가·적벽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판소리를 선보이는 것도 국악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번 공연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

- 판소리 구성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이야기 곳곳에서 판소리가 가진 매력을 듬뿍 살리려고 한다. 특히 정조의 명으로 수원화성을 쌓는 장면이나 다산이 암행어사로 활약하는 부분 등에서



는 ‘적벽가’처럼 박력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판소리로 그려낸 다산은 어떤 인물인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다산이라는 인물에 새삼 빠져들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유배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연구에 몰입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우리 소리로 되살린 판소리 ‘다산’은 책이나 드라마 등으로 만나던 다산의 삶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경향신문, 2012.08.22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남산서 ‘한마음 큰잔치’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가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큰잔치’를 연다. 음악인으로서의 다산을 조명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초점이다. 24일 오후 7시30분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지는 ‘다산음악회’는 다산의 시문을 음악으로 재구성한다는 취지의 공연이다.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막을 올려 평시조 ‘샘 위에’, 사설시조 ‘사람이’를 비롯해 다산이 애송했던 시경의 노랫말을 모티브로 삼은 국악관현악 등을 선보인다. 25일에는 다산다인상 시상 및 선비다례 시연이 같은 장소에서 있으며, 9월4일 오후 7시30분에는 다산의 삶을 판소리로 엮은 창작판소리 ‘다산’이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된다. 김세종이 창본을 썼으며 작창은 정희석, 고수는 박정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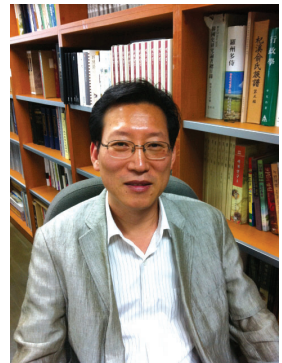
[이사람] “세계적인 음악학자 ‘정다산’ 소개합니다”

요순시절 고대음악 복원한 이론가
24일 음악회 · 새달 4일 판소리 공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 선정 기려


조선 후기의 큰 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돌을 맞아 음악인으로서의 다산을 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다산연구소와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다산의 숨결을 소리로 펼치는 한마음 큰잔치’다.

“다산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음악에 밝은 음악학자였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인 55살에 요순시대 유교 음악을 정리한 연구서 <악서고존> 12권을 저술했으며, 짧은 논문 형식의 <악론> 2편을 남겼습니다. 특히 <악론>에서는 음악의 효용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요순 시절의 고대 음악을 복원해 놓았어요. 다산은 음악이 없어짐으로 해서 태평시절 성인의 ‘도’나 ‘정치’가 없어졌다고 평하면서 슬퍼했지요.”

‘한마음 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김세종(49·사진) 다산연구소 연구실장은 “다산이 음악학자라는 것을 새롭게 알리고 음악으로 다산의 숨결을 느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다산 탄생 250돌에 즈음해 유네스코에서 다산을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와 함께 ‘2012년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한 만큼, 온 세계인과 함께 다산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소개했다.



‘정약용 탄생 250돌’ 큰잔치 마련한 김세종 다산연구소 실장



김 실장은 다산의 삶을 엮은 창작 판소리 <다산>의 창본을 직접 썼다. 새 달 4일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될 ‘다산’에서는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만들었던 배경과 경기도 암행어사, 황해도 곡산부사 시절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마음 등을 현실감 있게 그린다. 그는 “다산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함축시켜 판소리 어법에 맞춰 짜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며 “다산의 삶과 사상이 음악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 큰잔치’는 24일 저녁 7시30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흥취를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제3회 다산음악회’로 시작된다. 그는 다산의 한시를 한글 가사로 옮겨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엮고, 창작 판소리 단가 ‘마재 풍경가’도 새로 썼다. 조창훈(대금정악 예능보유자), 변진심(가곡 이수자), 유창(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김태희(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박정철(판소리고법 전수교육조교), 김영재(거문고산조 보유자후보), 김태연·유영희(진주검무 조교)씨 등 국악명인들이 무대에 선다.

김 실장은 전남대 예술대 국악과와 한양대 대학원(국악이론 박사)을 나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다산의 <약서고존> 12권도 번역해 출판을 앞두고 있다. (02)545-1692.

정상영 기자 chung@hani.co.kr, 사진 다산연구소 제공

웃음 터졌다, 기발함 가득한 정약용의 가사에 ...

[공연리뷰] 다산음악회

“모기야 모기야 알미운 모기야/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느냐 / 밤으로 다니는 것 도둑 배우는 일이요 / 제가 무슨 현자라고 혈식(血食)을 한단 말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유창씨와 제자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끝나자 함성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 선생이 한 여름 밤 모기와 사투를 벌이며 지은 시 ‘증문(憎蚊·알미운 모기)’을 서민들이 즐기던 국악의 한 장르인 경기잡가로 선보인 무대였다.

24일 오후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제3회 다산음악회’는 일반인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다산 선생의 한시(漢詩)가 음악의 옷을 입고 관객들과 친근하게 만나는 무대였다. 객석을 꽉 메운 300여 관객들은 이 기발하면서도 유쾌한 무대에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다산연구소 김세중 연구실장에 의해 한글로 옮겨진 다산의 시를 노래로 들으며, 그 재치 있는 표현에 공연 도중 크크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다산 탄생 250주년과 유네스코 2012년 세계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해 열렸다. 다산의 다양한 시가가 시조와 송서(誦書·소리를 내어 읽음), 잡가,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의 장르와 만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인 조창훈 선생의 청아한 대금 독주로 시작한 공연은 경기시



24일 열린 다산음악회에서 진주검무를 추고 있는 김태연 진주검무보존회장. [사진 다산연구소]



김세종 실장

조보존회장인 변진심 선생의 시조 ‘샘위에’와 ‘사람이’로 이어졌다. 시조는 흔히 고전문학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지만, 반주 없이 일정한 가락을 붙여 부르는 음악의 한 장르이기도 했다.

이어 유창 선생의 송서 ‘애절양(哀絶陽)’과 잡가(雜歌) ‘증문’ 공연이 무대를 달궜다. 송서와 잡가는 시조에 비해 음이 변화무쌍하고 활기차 객석을 들썩이게 했다. 이어 안개 낀 양수리의 풍경이 화면에 펼쳐지는 가운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김태희 명창이 판소리 ‘마재풍경가’를 선보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진주검무였다. 다산은 17세에 진주검무 공연을 보고 ‘무검편증미인(舞劍篇贈美人·칼춤 시를 지어 미인에게 주다)’이라는 시를 지었다. 무대에 오른 무희 두 명이 양손에 든 칼을 찰랑찰랑 흔들며 정갈하면서도 힘 있는 춤사위를 보여줬다.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푸른 뱀이 백 번이나 가슴을 휘감는 듯’이라는 다산의 시가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됐다.

2부에서 선보인 국악 오케스트라의 ‘시경(詩經)’ 연주도 신선했다. 경전으로만 알고 있는 시경이 가야금과 아쟁·장구 등의 국악기와 신디사이저·심벌즈 등의 서양악기가 함께한 현대적인 노래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회를 맡은 최종민 동국대 겸임교수는 “유교국가였던 조선은 음악이 넘쳐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겼다”며 “오늘 무대는 다산 선생이 강조하던 음악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고 평했다. 이날 공연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다산의 모든 것’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

다산학술문화재단 10년의 결실.. ‘신발골자료집’도 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 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의 결정체인 ‘여유당전서’가 새롭게 출간된다.

‘여유당전서’는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다산의 외현손인 김성진과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정리해 1934-38년 발간한 문집.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정보(定本) 여유당전서’를 다음 달 발간한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총 38권으로, 기존의 ‘여유당전서’에 1970년대 발간된 ‘여유당전서 보유(補遺)’ 일부를 추가했다. ‘여유당전서 보유’는 ‘여유당전서’에서 빠졌던 글들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정보 여유당전서’는 1권 ‘시집’을 비롯해 ‘아언각비’ ‘이담속찬’ ‘소학주관’ 등을 묶은 ‘잡찬집’ ‘문집’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시경강의’ ‘상서고훈’ ‘매씨서평’ ‘춘추고징’ ‘주역사전’ ‘역학서언’ ‘상례사전’ ‘약서고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강역고’ ‘대동수경’ ‘마과회통’ 등으로 구성돼 있다.

38권은 ‘신발골자료집’으로, 편지, 시 등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 100여 건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원문을 번역해 해제를 붙였으며 개별 사진도 실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이주행 본부장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라기보다는 박물관, 미술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지, 시 등 하나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술을 통해서만 이해되던 다산의 모습이 아닌 교우관, 감성 등 다양한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여유당전서’의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부호도 달았다.

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표점 작업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이다.

편집은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다산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여유당전서’ 정본화 사업을 기획한 이래 10년 만의 결실이다.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해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고전 텍스트 정본화 사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업이다.

여유당전서 정본사업 편집·운영위원회에는 한문학, 역사학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한문학의 대가인 위원장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인중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유권종 중앙대 교수(철학), 조성을 아주대 교

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본부장(철학)이 편집·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을 이끌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 여유당전서’를 책으로 펴낸 데 이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행 본부장은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에 이어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는 물론 외국 학자들도 다산의 저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다산의 사상과 학문 세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zhen@yna.co.kr

한국일보, 2012.10.02


‘정보 여유당전서’ 한국학 새 이정표 세워

국내 학계 역량 총결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 정약용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저자의 저술을 총망라해 정확한 판본을 만드는 고전 정본화(定本化) 사업은 학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업이다.

중국, 일본 등이 고전 정본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학문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지만 국내 정본화 사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25사(史)에 대한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완료했으며 고전 전적의 정본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는 국내 고전 연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산 정약용 전문가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여유당전서’가 다산이 죽은 지 100년 뒤인 1938년 완간됐는데 제대로 교열을 못해 다산의 저술 중 빠진 부분도 많았다”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으로 다산 사후 약 200년 만에 다산의 학문 전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이사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다산만큼 방대한 저서를 남긴 학자도 많지 않다”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다산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성호 이익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인데 1930년대 ‘여유당전서’가 발간된 이후 제대로 된 정본이 없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본은 학문의 기반인데 우리나라는 학문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이 고전 정본화 사업의 시발점이자 기록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본 여유당전서’에는 국내 학계의 역량이 총결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한문 고전에 능통한 원로 교수들도 기꺼이 힘을 보탰다.

송 명예교수는 ‘여유당전서 정본사업 편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



본 ‘여유당전서’ 발간과 연구를 총괄했다.

‘여유당전서 정본사업 편집·운영위원’으로는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중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유권중 중앙대 교수(철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이 참여했다.

이주행 본부장은 “선생님들께 연구비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으로 참여하셨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정본 여유당전서’ 발간을 기획한 것은 2001년이었다.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이 펴낸 저작의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지만 ‘정본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기까지 지난 10년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전문 연구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다산의 저작을 두루 대조해 틀린 글자를 바로잡는 교감 작업과 읽기 쉽게 한문 문장에 문장부호를 붙이는 표점 작업은 표준화된 표점 범례가 없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나서서 1934-38년 발간한 ‘여유당전서’는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주행 본부장은 “힘겨웠던 시대(일제강점기)에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쇄공의 실수 등으로 인해 저술당 수백 자에 이르는 오탈자가 발생했는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에 있는 필사본을 한데 모아 일일이 대조해 오탈자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정치,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저술을 남긴 ‘르네상스형 천재’였던 다산의 방대한 저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음악, 법률, 의학 등 10개 분야로 나눠서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원로 교수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인력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 ‘정본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한자 수는 500여만 자에 달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는 등 보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산의 사상을 조명해온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본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는데 이어 ‘다산 인문학 사전’도 펴낼 예정이다.

황윤정 기자

다산 정약용 연구 집대성 『정본 여유당 전서』 나온다

탄생 250주년 맞아 10년 준비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을 모아놓은 『여유당 전서』가 『정본(定本) 여유당 전서』(이하 정본)라는 새 이름을 달고 11월 말 출간된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이 10년간 준비해 오다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

모두 38권인 정본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대표작을 비롯해 지금까지 알려진 다산의 모든 저술을 망라한다. 정본 편집위원장 송재소(성균관대 한문학) 명예교수와 금장태(서울대 종교학)·이지형(성균관대 한문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다산 전문가가 대부분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다산 연구에 관해선 이 정본을 기본 자료로 한다는 의미”라며 “인터넷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우리 고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산의 저술은 당초 손으로 쓴 필사본으로만 전해졌다. 이를 『여유당 전서』라는 납활자 인쇄본 전집으로 처음 묶어낸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6~38년이다. 다산 서거 100주년을 맞아 다산의 외현손 김성진과 위당(爲堂) 정인보, 민세(民世) 안재홍 등 저명 학자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펴냈다. 당시 ‘신조선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기에 흔히 ‘신조선사본’으로 불린다.

새로 나올 정본은 신조선사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형식을 많이 달리했다. 납활자가 아닌 컴퓨터로 500만여 자에 달하는 한자 원문을 입력해 향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 국내외 흠어져



정약용



있는 다산의 필사본을 가능한 모두 수집했고, 오·탈자는 물론 누락된 문장, 편집체계와 내용까지 일부 바로잡았다. 읽기 편하도록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했고 문장부호도 넣었다.

편집위원인 김문식(단국대·한국사) 교수는 “현재 우리 학계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다산 연구의 기본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대 기자 [balance@joongang.co.kr]

동아일보, 2012.11.24(토)

[동아광장/박석무]세계문화유산으로 기려야 할 ‘여유당전서’

올해는 다산 탄생 250주년이다. 마침내 온 세계의 학술·문화계에서 그를 알아주어 유네스코는 2012년 기념할 인물로 다산을 선정했다. 한국의 정약용은 세계의 정약용으로 예우를 받게 되었고 이런 때를 맞아 11월에는 그의 전 저작물을 총망라하여 제대로 교정·교열하고 표점(띄어쓰기 표시)까지 찍은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정약용 문집)가 출간됐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이 나라 학술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이번 간행은 다산학 연구의 재도약을 가능케 할 좋은 발판을 제공했다고 평가해도 좋겠다.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던 선학(先學)들인 위당 정인보, 민세 안재홍 등은 다산 서세(逝世·별세의 높임말) 100주년을 맞아 ‘여유당전서’ 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다산 선생의 학문적 위상과 업적을 세상에 알리며 저서 간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1938년 총 154권을 76책으로 묶어 활자인쇄본 간행이 완료됐다.

본디 저자의 분류로는 500권이 넘는 분량이었으나 활자로 인쇄하면서 권수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76책은 1962년에야 축쇄영인본이 나왔고, 1970년에는 경인문화사에서 6책으로 축쇄영인하고, 전서에서 빠진 보유편을 5책으로 영인 간행했다. 1985년에는 여강출판사에서 20책으로 76책의 전서를 다시 영인하여 간행하였고 최근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총간의 하나로 6책으로 다른 책과 대조하여 바르게 만든 축쇄영인본을 간행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 단국대 석좌교수

10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본 다산

이렇듯 여러 차례 간행은 되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이나 인쇄 과정에서 빠진 글자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저자의 저술이 아닌 글들이 포함됐고, 잘못 들어간 글이나 빠진 글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산 자신의 저술에 가장 가까운 정본 사업에 착수해 다산학술문화재단의 10년간 공로로 이번에 간행되기 이르렀다.

만சி탄이 있지만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적으로 경하할 일이고 세계 학술사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행을 계기로 국민적 힘을 모아 유네스코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조선 민족은 다산 서세 100주기이던 1936년을 전후하여 다산의 저술을 읽어보고서야 그 위대함과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짐작하기 시작했다. 다산이 뜻을 펴지 못하고, 그의 학문과 정책이 국가시책에 반영되지 못해 망국의 서러움까지 당했음을 자각하면서 다산 저술의 진가를 뼈아프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산의 학문 종지(宗旨)는 경학(經學)에 있고 그런 종지에 따라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던 경세학(經世



學)인 일표이서(一表二書·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를 통해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우자던 다산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은 없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갈구하던 민족주의 학자들은 다산의 학문을 통해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뜻을 품기도 했다. 위당 정인보는 1934년 9월 10~15일 6회에 걸쳐 정치학자·경제학자·법학자이던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1935년 8월에는 신동아에 저서 간행의 간절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1936년 6월에는 동아일보에 ‘다산 선생의 일생’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여 다산학의 개요를 설명했다. 서세 100주기를 기념하는 명문의 글이 바로 그 기사였다.

정인보는 ‘여유당전서’를 통독하고 그 책을 교정하고 교열한 능력으로 다산의 일생을 서술했다. 그는 “선생 한 사람에 대한 고구(考究)는 곧 조선역사의 연구요 근세 조선사상의 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나 조선정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및 조선의 성쇠존망에 대한 연구는 다산의 저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선언을 했었다.

7개 분야 500권으로 구성

그는 500권이 넘는 저서를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전서의 편집을 완료했다. 1집은 25권 12책으로 시(詩)와 문(文)의 분야다. 2집은 48권 24책으로 경학 즉 철학분야다. 3집은 24권 12책 예집(禮集)으로 상례(喪禮)·제례(祭禮)의 예학분야다. 4집은 4권 2책으로 악집(樂集)이니 음악에 관한 분야다. 5집은 정법집으로 39권 19책으로 이른바 ‘일표이서’라는 경세학 분야다. 제6집은 8권 4책으로 지리학 분야다. 마지막 7집은 6권 3책의 의약집이니 의약·약학에 관한 책으로 ‘마과회통’이 바로 그것이다.

다산의 정신세계에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주의, 백성만이 궁극적으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본정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한없이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애민정신, 공직자의 청렴정신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청렴입국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다. 오늘의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제공해주는 지극한 보배가 바로 ‘여유당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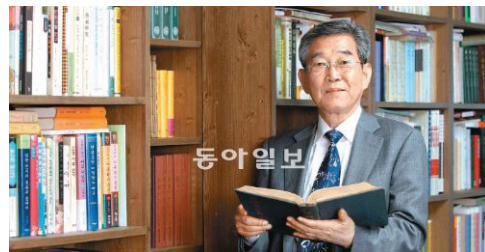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 단국대 석좌교수

동아일보, 2012.12.03(월)


다산 문집 총정리 ‘여유당전서’ 74년만에 ‘정본’ 출간 지휘 송재소 교수

“유례없이 방대한 1인저술… 유네스코 등재 추진해볼만”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는 한국학의 보고(寶庫)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근세조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산의 유저(遺著)를 읽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정본(定本) 여유당전서’ 출간은 한국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을 총망라한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출간 74년 만에 ‘정본 여유당전서’로 새롭게 나온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주도로 10년간 매달린 끝에 18일 정본 37권



다산 정약용의 향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짙어진다. 다산 시 연구의 권위자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981년 출간돼 사랑받다가 절판된 ‘다산 시선’ (창비)을 내년 초 수정증보판으로 역주해 다시 출간한다. 다산의 시를 찾는 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과 별책 1권이 도서출판 사암에서 출간되는 것.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 등 다산 연구자가 총동원됐고 실무자까지 총 80여 명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다.》

편집위원장으로 10년간 정본 출간을 진두지휘한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69)는 “다산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과학 의학 군사학 지리학 등 다방면을 아우르며 그 깊이도 상당했다”며 “한 사람이 이처럼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여유당전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유당전서’는 1934~38년 다산의 외현손 김성진과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에서 시에 이르기까지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다산의 저술을 최초로 모아 154권 76책의 활자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출판사 신조선사가 간행해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로도 불린다. 신조선사본은 다산 연구의 교과서라 할 만하지만, 오·탈자가 다수 발견됐고 다산이 쓰지 않은 글이 잘못 수록되거나 저술의 순서가 뒤섞인 문제가 있었다.

연구의 기본서가 되는 정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기존에 누락됐거나 새롭게 발견된 다산의 저술을 보충했다. 한문 원문에는 없는 13가지 문장 부호로 표점(標點) 작업을 하고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시도해 읽기 쉬워졌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 흩어진 다산 저술의 필사본 300여 종을 수집해 일일이 비교하며 정확도를 높였다. 송 교수는 “지금까지 신조선사본을 토대로 발표된 논문이 2300여 편, 단행본이 100여 권에 이른다”며 “정본 출간을 계기로 다산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외국 학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독자가 정보의 오류를 지적하면 고치는 ‘집단지성’이 활용된다. 송 교수는 “여유당전서는 한자 500만 자가 넘는 분량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100% 완전한 정보를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웹을 통해 다같이 완성도를 높여 가면 된다”고 말했다.

여유당전서를 모두 읽기 어려운 대중이나 외국인을 위해 송 교수는 ‘여유당전서 절요(節要)’ 또는 ‘다산학 절요’를 낼 계획도 있다. 여유당전서의 핵심만 뽑아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한 책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보에 이어 ‘다산학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다산의 저술 주제가 다양한 만큼 여유당전서 속 중요한 내용을 표제어로 내세워 뜻을 풀어내면 곧 조선후기의 백과사전이 된다. “다산은 당시 조선에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업제도, 군사제도 등 각계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려 하니 다산의 관심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다산이 태어난 지 250년이 지난 지금도 다산에 주목하는 이유를 물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다산은 제도부터 국민의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고 글을 통해 그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산의 개혁정신은 어느 시대에나 본받을 가치가 있어요.”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연합뉴스, 2012.12.17

다산학의 신기원 ‘정본 여유당전서’ 18일 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조선 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가 새롭게 출간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18일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도서출판 사암)를 발간한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 2001년 기획에 착수한 지 10여 년 만에 완성한 역작이다.

국학자 정인보, 안재홍 선생 등이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1934-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지 70여 년 만이다.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인쇄 과정 등에서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는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기존 ‘여유당전서’에 실린 저술 가운데 다산의 것이 아닌 것은 빼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은 포함시켰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부호를 달았다. 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표점 작업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고전 연구의 기초 작업이다.



편집은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총 37권이며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도 이번에 함께 출간된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산학은 물론 국내 고전 연구의 새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 10여 년간 투입된 전문 인력은 80여 명에 이른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동참했다.

편집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송 명예교수와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종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 등이 참여했다.

30여 차례에 걸친 편집운영회의와 워크숍, 국내외 학술회의를 열었으며 300여 종에 이르는 국내외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 확인해 ‘정본 여유당전서’를 완성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yunzhen@yna.co.kr

중앙일보, 2012.12.17

‘정본 여유당전서’ 전37권 나왔다, 다산 탄생250년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다산학술문화재단이 다산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정본 여유당전서(定本 與猶堂全書)’ 전 37권을 21일 출간한다.

정인보·안재홍이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던 다산의 저서를 모아 154권 76책으로 정리한 ‘여유당전서’(신조선사)를 발간한 지 77년 만이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이 책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다산의 저작이 아닌 것을 제외했다. 또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키는 등 새로 편집했다. 부록으로 실린 ‘다산 간찰집’을 포함해 총 38권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 간 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했다. 국내외 300여종의 필사본을 대조, 확인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여유당전서’가 한 시대의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 문화의 긍지를 되살려 준 조선출판계의 금자탑이었다면,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나온 ‘정본 여유당전서’는 21세기 문명적 전환기에 세계 인문학을 향해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기대했다.

realpaper7@newsis.com

다산학의 집대성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 목민심서·新발굴 저작 등 포함 편지모음 ‘다산 간찰집’도 발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정본 여유당전서’(도서출판 사암 펴냄)가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연구 인력 80여명이 투입돼 18일 새롭게 출간됐다. 2001년 기획에 착수한 지 10여년 만이다. 모두 37권이며 ‘정본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도 이번에 함께 출간된다.

‘여유당전서’는 국학자 정인보·안재홍 선생 등이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1934~19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70년 전에 이미 출간했다. 그러나 당시 ‘여유당전서’에는 인쇄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에는 ‘목민심서’는 물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켰다. 또 표점(標點)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읽기 편하도록 원문에 문장부호를 달았다. 또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한문학의 대가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김문식 단국대 교수(역사학), 김언중 고려대 교수(한문학),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역사학), 방인 경북대 교수(철학), 심경호 고려대 교수(한문학), 조성을 아주대 교수(역사학), 이광호 연세대 교수(철학),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이

주행 다산학술문화재단 본부장(철학) 등이 참여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한겨레신문, 2012.12.19

다산 저작 집대성한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



〈정보 여유당전서〉

10여년간 300여 필사본 대조
기존 ‘신조선사본’ 오류 고쳐
신뢰도 가장 높은 정보 확정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탄생 250돌을 맞아,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가 10년이 넘는 ‘정문화 작업’을 거쳐 〈정보 여유당전서〉(사진)로 새롭게 거듭났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18일 전 37권으로 이뤄진 〈정보 여유당전서〉(사암 펴냄)를 발간했다. 2004년부터 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래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존에 전해오던 〈여유당전서〉에 대한 비판적·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정된 것이다. 이번 작업은 다산 사상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국내



고전 연구에서 취약한 분야였던 정보화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학자 정인보·안재홍은 다산 서거 100돌이던 1936년에 여러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글과 저작들을 모아 〈여유당전서〉를 펴낸 바 있다. 154권 76책으로 이뤄진 이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는 다산의 지적 세계를 집대성해, 그 뒤로 오랫동안 다산 연구의 핵심 텍스트로 구실을 해왔다. 그동안 신조선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2000편이 넘는 논문과 300편 이상의 석·박사논문이 발표됐을 정도다.

그러나 신조선사본은 시대적 한계도 안고 있었다. 식자공의 실수로 저술당 수백자에 이르는 오·탈자가 있었고, 다산의 저작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다산의 저술이 아닌 글이 잘못 실리기도 했다. 또 신조선사본 출간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그 뒤에 발간된 저작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그간 정보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정보화 사업에는 준비기간을 포함한 지난 10여년 동안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외 300여종의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하고 30여차례의 편집 운영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연구 검토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기존 ‘신조선사본’의 편집체제에 따르되, ‘신조선사본’에 누락됐던 〈민보의〉와 같은 저술을 포함시키는 등 전체 저술 목록을 새로 확정했다.

이주행 재단 본부장은 “〈정보 여유당전서〉 출간은 국내 학계에서 한 사상가의 전체 저술을 정보화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많은 한국 고전들의 정보화 사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다산 “죽음은 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버섯”

별세 6일전 편지 발견.. ‘목민심서’ 집필 언급 편지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하면서 더욱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있으며 또 두풍(頭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혼(回婚)이 이미 임박하였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중략) 2월16일 병제(病弟) 약용(若鏞) 돈수(頓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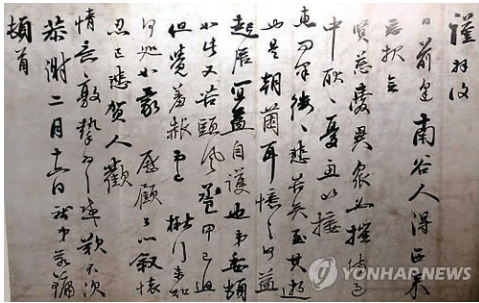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랜 유배 생활로 기력이 쇠잔해졌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어쩌다 친구가 찾아와도 옛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세상을 뜨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발견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다산 간찰집’ 발간을 총괄한 고문헌연구가 박철상 씨는 여기저기 흩어진 다산의 간찰(편지)을 한데 모아 정리하던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편지를 찾아냈다.

“회혼이 임박하였다”는 편지 내용으로 보



다산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발견 (서울=연합뉴스) 조선 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이 세상을 뜨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처음 발견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다산은 이 편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12.20 <문화부 기사 참조> photo@yna.co.kr



아 이 편지는 다산이 1836년에 쓴 편지로 보인다고 박씨는 추정했다.

회혼은 혼인 60주년을 일컫는 말로, 부부가 혼인 60주년을 맞으면 자녀가 이를 축하하는 잔치(회혼례)를 열었다. 다산은 혼인 60주년 회혼례 당일인 1836년 2월22일 아침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박씨는 “정약용은 1836년 2월22일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상을 뜨기 6일 전의 편지”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약용의 편지 중 마지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산의 절필(絶筆)이라 할 수 있는 편지”라면서 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쓴 편지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다.

“저는 노쇠함이 날로 심하여 책을 몇 줄만 보면 이미 두 눈썹이 아교 붙인 듯 달라붙고, 이웃 마을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소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는 채(蔡) 영감이 찾아와 쌓인 회포를 풀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마주할 뿐이었습니다.”(1821년 쓴 편지)

“저는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있어 참으로 괴롭습니다. 힘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정신과 진액은 모조리 소진되어 남은 것은 겨우 실낱 같은 목숨뿐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1830년 쓴 편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언급한 다산의 편지도 발견됐다.

“사군자(士君子)가 입신(立身)하여 임금을 섬김에는 오직 이 목민(牧民)이라는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을 씻고 정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의(失意)하게 되어 백성을 운택하게 할 길이 없어지자 옛 사람이 남긴 언행 40권을 모아 ‘목민심서’라 이름 지

었습니다. 품에 안고 돌아온 지 2년이 되었건만 함께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오형(吾兄)께 처음으로 이 책을 봉증(奉贈)하니 제사가 지난 뒤에 모여서 함께 이 책을 보았으면 합니다. (중략) 8월14일에.”

이 편지는 1820년 8월14일 다산이 조선 후기 문신 한익상(1767-1846)에게 보냈다.

박씨는 “이는 (다산의 연보인) ‘사암선생연보’를 기준으로 ‘목민심서’ 초고가 완성된 것이 1818년이고 이때 12편 72조의 편제가 모두 갖춰졌으며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821년 서문을 썼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다산은 1818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다산이 48권이나 되는 자기 저술(목민심서)을 40권이라 했을 리 없다는 게 박씨의 분석이다.



‘목민심서’ 언급한 다산 편지 발견 (서울=연합뉴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언급한 다산의 편지가 발견됐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펴낸 ‘다산 간찰집’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일제강점기인 1935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사진으로 실려 있다. 고문헌연구가 박철상 씨는 “조선일보에 실린 편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다산이 ‘목민심서’에 대해 자신이 지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편지가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2012.12.20 << 문화부 기사 참조 >> photo@yna.co.kr

그는 “이때까지 다산은 ‘목민심서’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한익상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검토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면서 “결국 한익상과 만난 이후 ‘목민심서’는 지금의 모습인 48권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1935년 7월18일자 조선일보에 사진으로 실렸다.

박씨는 “조선일보에 실린 편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다산이 ‘목민심서’에 대해 자신이 지었다고 언급한 것은 이 편지가 유일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다산 간찰집’에는 다산의 저술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편지 121편이 실렸다.

박씨는 “의원(醫員)으로서 다산의 모습, 저술하는 다산의 모습, 그리고 해배(유배에서 풀려남) 이후의 다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다산의 얼굴을 알려주기 충분한 자료들”이라고 소개했다.

다산은 무엇보다 편지를 쓰는 데 신중했다.

“편지 한 통을 쓸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빌어야 한다. ‘이 편지가 큰길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열어보아도 내게 죄를 주는 일이 없겠는가?’ (중략) 그런 다음에야 봉투를 붙여야 한다.”

유배지인 강진으로 찾아온 아들 학유에게 써준 글 ‘신학유가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씨는 “다산의 간찰은 형식적인 인사말은 별로 없고 꼭 필요한 말만 썼으며 해학적인 언사들이 가득해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면서 “다산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zhen@yna.co.kr

연합뉴스, 2012.12.20

정해창 이사장 “다산의 애민정신 이어받아야”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다산의 꿈은 어지럽고 약한 조선을 부강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

을 사랑하는 다산의 애민(愛民)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 탄생 250주년인 올해는 전 법무장관 정 해창(75)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에게 특별한 해였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올 한 해 동안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다산의 삶과 학문 세계를 재조명했으며 최근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한 ‘정본(定本) 여유당 전서’를 발간,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본 여유당전서’는 민간단체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 10년 넘는 시간을 투입해 완성한 역작이다.

정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산학술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4년이 되는데 그 가운데 11년이란 긴 시간을 투입,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사업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이라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집대성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계의 기념비적 쾌거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인 1934~1938년 국학자 정인보 등이 다산의 글과 저서를 모아 펴낸 ‘여유당전서’는 그동안 다산 연구의 기본 ‘교과서’로 활용됐지만 오탈자, 미수록 저술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는 한편 국제적 고전 정리 방식인 표점(標點·고전 원문에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다는 작업), 띄어쓰기, 가로쓰기 체제 등 현대화된 편집체제를 갖춘 ‘정본’을 발간하는 것은 다산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학계의 숙원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학술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재단 설립 후 일천한 시점부터 이 사업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다산이 펴낸 저작의 정확한 판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지만 ‘정



본 여유당전서'를 발간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확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흩어져 있는 300종이 넘는 필사본을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문 연구자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표준화된 표점 범례가 없는 상황에서 표점 작업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정 이사장은 “‘정보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우리의 지적 자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차원의 학술사업’이라면서 “다산 저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등 다산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여유당전서’의 보급에 힘쓰는 한편 ‘다산학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다산 저술의 한글 번역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산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다산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정 이사장은 “다산의 꿈은 어지럽고 약한 조선을 부강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다산 프로젝트’는 25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다산의 사상 가운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되새겨야 할 덕목과 임무로는 “꿈임없이 자신과 공동체의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이며 도덕성과 청렴성, 원칙성과 책임감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다산은 유교경전인 사서육경(四書六經)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한편 일표이서(경세유표·목민심서·흠휼심서)를 통해 국가경영의 소신을 개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역사의 교훈을 통해 인격과 지성을 도



야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대공무사(大公無私)하는 정신을 지닐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국가경영, 비전, 제도, 법제를 혁신할 청사진을 피력하고 지방행정 및 사법의 실무지침과 개혁안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애민(愛民)의 마음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yunzhen@yna.co.kr

문화일보, 2012.12.20

茶山 학문의 결정체… 정보 여유당전서 발간 70여년만에 오자 정리, 십표 등 달아 읽기 쉽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새롭게 출간된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은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정보(定本) 여유당전서’(전 37권 · 도서출판 사암)를 21일 발간한다.

국학자 정인보 · 안재홍 선생 등이 다산 서거 100주년(1936)을 기념하고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1934~1938년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을 모아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를 발간한 지 70여년만의 일이다. 부록으로 나오는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새로 발굴된 다산의 편지를 모은 ‘다산 간찰집’까지 포함하면 총 38권의 대작이다.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비롯해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다산의 저술 154권 76책이 총망라돼 있다. 하지



만 인쇄 과정에서 식자공(植字工)의 실수로 오·탈자가 많이 발생했고 다산의 저술인데도 빠진 것이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본 여유당전서’의 경우, 편집 체제는 신조선사본을 따랐으며 교감(校勘) 작업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기존 ‘여유당전서’에 실린 저술 가운데 다산의 것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은 포함시켰다. 또 전문 학자뿐만 아니라 한문에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원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점(標點)을 가해 원문에 십표와 마침표 등 총 13개의 문장부호를 달았다. 편집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가로쓰기로 바꿨다.

‘정본 여유당전서’의 발간은 다산의 저작을 교감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산학은 물론 국내 고전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기획에 착수한 지난 2001년 이후 10여 년 동안 투입된 전문 인력만 80여 명에 달하며 300여 종의 국내외 필사본을 일일이 대조 확인해 ‘정본 여유당전서’를 완성했다. 30여 차례에 걸친 편집운영회의와 워크숍, 매년 두 차례 국내외 학술회의도 개최했다.

송재소(편집운영위원장)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이지형(성균관대)·김태영(경희대)·금장태(서울대) 명예교수, 이광호 연세대 교수, 김인중·심경호 고려대 교수, 방인 경북대 교수, 김문식 단국대 교수 등 국내의 대표적 다산학 연구자들이 ‘정본 여유당전서’ 편찬 작업에 동참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정본 여유당전서’ 출간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최영창 기자 ycchoi@munhwa.com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죽는다는 것은 하루살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

다산문화재단, 정약용 별세 6일전 편지 수록 ‘간찰집’ 발간

“죽는다는 것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버섯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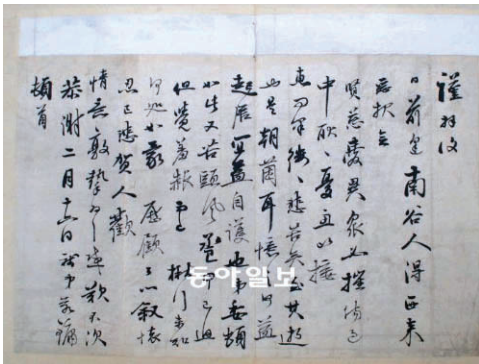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별세하기 6일 전에 쓴 편지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다산의 편지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것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최근 펴낸 ‘다산 간찰집’에 이 편지를 수록했다. ‘다산 간찰집’에는 다산의 저술이 총망라된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편지 121편이 번역·주석과 함께 수록됐다. ‘다산 간찰집’ 발간을 주도한 고문헌 연구가 박철상 씨가 흠어져 있는 다산의 편지들을 모으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2월 16일자로 적힌 이 편지에서 다산은 “저는 이렇게 자리보전하고 있으며 또 두풍(頭風·두통이 오래 낫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

혼(回婚·결혼 60주년)이 이미 임박하였지만 부끄러울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다산은 1836년 2월 22일(음력) 회혼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편지는 그보다 6일 전인 1836년 2월 16일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지의 수신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노년





기에 쓴 편지에는 쇠약해진 몸으로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끼던 제자 황상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리움이 절절하다.

박 씨는 “문집에 실리지 않은 다산의 편지는 가공하지도 꾸미지도 않은 다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다산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2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출간기념회를 열고 ‘정본 여유당전서’(총 37권)와 별책인 ‘다산 간찰집’을 공개한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경향신문, 2012.12.25

실학 집대성 정약용 저작 모음집 ‘정본 여유당전서’ 38권으로 출간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1762~1836)은 모두



500여권에 달하는 저작을 남겼다. 다산 사후에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저술은 다산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야 비로소 정인보·안재홍에 의해 정리돼 <여유당전서>로 간행된다. 1938년 신조선사에서 간행된 이 저작집을 바탕으로 200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300여편의 석·박사논문, 100여권의 연구 저서가 출간돼 ‘다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조선사본은 오·탈자가 적지 않은 데다 다산의 저작이 아닌 글이 수록되거나 ‘민보의’처럼 널리 알려진 저술이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아 74년만에 <정본(定本) 여유당전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별책으로 펴낸 <다산간찰집>을 포함해 모두 38권의 대작이다. ‘정본’ 발간으로 다산에 대한 더욱 밀도있는 재평가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해석에 가려 그간 주목받지 못한 고전 텍스트 ‘정본화’ 사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다.

‘정본’은 신조선사본의 편집체제를 따랐으나 출간 당시에 미처 수습하지 못했거나 새로 발굴된 다산의 저작을 포함시켰고, 다산의 저술로 판단하기에 의심스러운 글은 제외했다.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외에 산재한 300여종의 각종 필사본을 대비해 정확성을 기했고, 한문 문장에 읽기 쉽도록 문장부호도 달았다. 다산의 저작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되살리려는 이 작업에는 10여년이 걸렸다. 80여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했고 편집운영회의와 자체 워크숍만 30여차례 개최됐다.

<정본 여유당전서> 편집운영위원장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해제를 통해 “정인보 선생은 일찍이 ‘근세 조선을 알려 하는 이는 다산의 유저(遺著)를 통하여 찾아볼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먼 훗날 언젠가는 또 새로운 정본이 만들어지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다산학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자부해 본다”고 밝혔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사업백서

초판 발행일 | 2013년 9월 1일

펴낸이 | 정해창

기획 | 다산학술문화재단

편집 | 이주행, 이대승

펴낸곳 | 도서출판 사암

신고번호 | 제22-2799호(2005.8.3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801호

전화 | 02-585-9548

팩스 | 02-585-9549

전자우편 | saambooks@gmail.com

ISBN 978-89-91881-89-1 03810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3015842)